

윤:공하다 문학01

개념학습 01	: 「춘설」
개념학습 02	: 「정석가」
개념학습 03	: 「황만석은 이렇게 말했다」
개념학습 04	: 「이준풍전」
개념학습 05	: 「산돼지」
개념학습 06	: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개념학습 07	: 「눈물」
개념학습 08	: 「심청가」
개념학습 09	: 시조 3수

수능특강 문학

개념학습 01 - 춘설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웅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움짖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우수절: 입춘과 경칩 사이의 절기인 우수로, '봄비로 물기운이 가득한 때'라는 뜻임. 양력 2월 18일경.

*웅송그리고: 춥거나 두려워 몸을 궁상맞게 몹시 움츠려 작게 하고.

*움짖 아니 기던: 움직이지 않던.

*햇웃: 안에 숨을 두어 지은 겨울웃.

➤ [분석 후 <해제>와 <구성>을 참고하여 해석해 보기]

{해제}

이 작품은 춘설(봄눈)이 내린 우수절 초하루 아침을 배경으로 하여, 화자가 느낀 봄의 생동감을 담아내고 있다.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통해 자연의 생명력을 그리고 있으며, '~ 선뜻!', '~ 차라.', '~ 향기로워라.' 등의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춘설을 봄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소재로 활용한 시인의 참신한 발상이 돋보인다.

{주제}

춘설이 내린 자연에서 느끼는 봄의 생동감

{구성}

- 1연: 문을 열자 보이는 먼 산
- 2연: 우수절 초하루의 아침
- 3연: 가깝게 느껴지는 눈 덮인 산
- 4연: 봄이 오는 모습
- 5연: 봄기운을 느낀 화자
- 6연: 생동감 있는 봄의 모습
- 7연: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화자의 소회

STEP 01. 오늘의 국어 : 개념 체크 O, X 퀴즈

1. 춘설은 자연물의 의인화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O , X)
2. 춘설에 드러난 감각적 표현은 시각과 후각이다. (O , X)
3. 춘설에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정서 변화 과정이 드러나 있다. (O , X)
4. 1연의 내용이 3연에서 심층 전개되어 나타나고 있다. (O , X)
5. 봄의 낮선 풍경에 대한 느낌이 드러나 있다. (O , X)
6. 화자는 봄에 미나리를 먹고 싶어한다. (O , X)
7. 산이 이마받이를 하다. 라는 구절을 해석해보라.
8. 먼 산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 (O , X)
9. 눈이 덮인 멧부리를 대하여 화자는 '서늘옴고 빛난 이마받이 하다' 라고 표현한 것에서 화자는 사물을 촉각과 시각이 결합된 복합 심상으로 제시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O , X)
10. 흰 옷고름을 통해서 화자는 봄의 계절적 변화를 자신의 몸을 통해 감지하고 있다. (O , X)

STEP 02. 유사 변형으로 문학 지문 뜯어 보기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웃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웅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

01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어미를 반복하여 시상의 통일성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색채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고유어와 예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여 토속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눈 온 아침의 차가운 기운에 대한 놀라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② ㉡ : 계절감과 어울리지 않는 눈에 대한 화자의 감흥을 반영하고 있다.
- ③ ㉢ : 바람이 전해 주는 신선한 봄의 기운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 봄바람에 날리는 웃고름을 통해 봄기운을 생동감 있게 보여 주고 있다.
- ⑤ ㉤ : 겨울도 봄도 아닌 다른 계절을 느끼고 싶어 하는 화자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2)

03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시각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 ② 화자를 멧부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③ 화자와 산의 거리가 사라졌음을 보여 준다.
- ④ 현재형 어미를 통해 내면의 생생함을 드러낸다.
- ⑤ 문장의 호흡을 깨뜨려 낯선 언어 감각을 보여 준다.

3)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웃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웅숭거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워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04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눈과 추위에서 겨울의 기운을 느끼고 있다.
- ② 화자는 우수절 초하루 아침에 문을 열어 먼 산을 보고 있다.
- ③ 화자는 훈훈한 바람에 날리는 웃고름에서 봄의 향기를 느끼고 있다.
- ④ 화자는 산봉우리가 이마에 와서 부딪치는 듯한 강한 느낌을 받고 있다.
- ⑤ 화자는 다가오는 봄의 생동감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다.

4)

05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감탄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마음을 인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③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복합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④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각 연에 2행씩 배치하는 형태적 유사성을 통해 시적 안정감을 꾀하고 있다.

5)

06. 이 시와 <보기>의 '감각적 이미지'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봄비가 가늘어 방울도 들지 않더니
 밤중에 약간 소리가 나는 듯했네.
 눈 녹아 남쪽 개울에 물이 불었거니,
 풀썩은 이미 얼마나 돋았는고.

春雨細不滴(춘우세부적)
夜中微有聲(야중미유성)
雪盡南溪漲(설진남계창)
多少草芽生(다소초아생)

- 정몽주, <춘흥(春興)>

- ① <보기>는 봄비의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봄을 나타내고 있어.
- ② 이 시는 봄바람의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봄의 기운을 나타내고 있어.
- ③ 이 시는 눈 덮인 산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초봄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 ④ 이 시는 이마에 느껴지는 차가움의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봄의 생동감을 나타내고 있어.
- ⑤ <보기>는 새싹이 돋는 풍경을 상상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봄이 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군.

6)

07 이 시와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매화 옛 등걸에 봄철이 돌아오니
옛 피던 가지에 피엄적도 하다마는
춘설이 난분분(亂紛紛)하니 필 동 말 동 하여라.

- ① 이 시와 <보기> 둘 다 '춘설'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 ② <보기>는 이 시와 달리 4음보의 정형적 율격을 지키고 있다.
- ③ 이 시와 <보기>의 화자 둘 다 봄이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 ④ 이 시는 <보기>와 달리 반어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이 시의 '눈'은 봄의 신선한 기운을 전달하지만, <보기>의 '눈'은 봄의 방해자로 그려지고 있다.

7)

봄추위를 한자 말로는 '춘한(春寒)'이라 하고 순수한 우리 토박이말로는 '꽃샘'이라고 한다. 손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다. 시적인 감각으로 볼 때 '춘한'과 '꽃샘'은 분명 한자리에 놓일 수 없는 차이가 있다.

'꽃샘'은 어감도 예쁘지만 꽃 피는 봄을 샘내는 겨울의 표정까지 읽을 수가 있어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계절까지도 이웃 친구처럼 의인화하며 살아왔던 한국인의 유별난 자연 감각이 이 한마디 말 속에 축약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꽃샘추위의 한국적 정서를 보다 시적인 세계로 끌어올린 것이 정지용의 <춘설(春雪)>이다. 그리고 지용은 그 시에서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라는 불후의 명구를 남겼다. '시는 놀라움이다.'라는 고전적인 그 정의가 이처럼 잘 들어맞는 시구도 드물 것이다. 우리는 반복되는 시간과 공간의 관습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굳은살이 박인 일상적 삶의 벽이 무너질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그 '놀라움'이며 '시'이다.

<춘설>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침에 문을 여는 순간 속에서 출현한다. 밤사이에 생각지도 않은 봄눈이 내린 것이다. 겨울에는 눈, 봄에는 꽃이라는 정해진 틀을 깨뜨리고 봄 속으로 겨울이 역류(逆流)하는 그 놀라움이 <춘설>의 시적 출발점이다. 그것이 ㉠만약 겨울에 내린 눈이었다면 '선뜻'이라는 말에 느낌표가 붙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그냥 차가움이 아니다. 당연히 아지랑이나 꽃이 피어날 줄 알았던 그런 철[시간], 그런 자리[공간]에 내린 눈이었기 때문에 그 '선뜻'이란 감각어에는 '놀라움'의 부호가 요구된다.

그리고 그러한 '놀라움'은 손발의 시림 같은 일상의 추위와는 전혀 다른 '이마'위의 차가움이 된다. '철 아닌 눈'에 덮인 그 산은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視覺)의 산이 아니라 이마에 와 닿는 촉각적(觸覺的)인 산이며,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이 아니라 '이마받이'를 하는 '서늘옴과 빛난' 거리가 소멸된 산이다. 그렇게 해서 '먼 산이 이마에 차라.'의 그 절묘한 시구가 태어나게 된다.

'이마의 추위'는 단순한 눈 내린 산정의 감각적 묘사에서 그치지 않고 ㉡'춘설'과 '꽃샘추위'에 새로운 시적 부가 가치(附加價值)를 부여한

다. ‘춘설이 난분분하니 필 동 말 동 하여라.’의 옛시조나 ㉮‘春來不似春(춘래불사춘)’ 같은 한시의 상투어들은 봄눈이나 꽃샘추위를 한결같이 봄의 방해자로서만 그려 낸다. 그러한 외적인 ‘손발의 추위’를 내면적인 ‘이마의 추위’로 만들어 낸 이가 시인 지용인 것이다.

그에게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은 어느 꽃보다도 더욱 봄을 봄답게 하고 그 감각과 의미를 새롭게, 그리고 진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봄눈이 내린 산과 ‘이마받이’를 한 지용은 “흰 웃고름 절로 향기로워라.”라고 노래한다.

08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품에 대한 생각을 논리적으로 나타낸다.
- ② 작품이 갖는 문학사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 ③ 작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주장을 뒷받침한다.
- ④ 작가의 말에 따라 작품의 구체적 의미를 상세히 설명한다.
- ⑤ 작품과 작가, 현실, 독자와의 관련성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해석한다.

8)

09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품의 본문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 ② 같은 개념의 한자어와 우리말을 비교하고 있다.
- ③ 시조, 한시 등의 다른 문학 작품을 다양하게 인용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을 상세히 나타내고 있다.
- ⑤ 단어의 어감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삶까지 고려하며 서술하고 있다.

9)

10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시인이 겨울에 내린 눈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 ② 겨울에 눈이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 ③ 겨울에 내린 눈은 추위를 몰고 오지 않기 때문에
- ④ 겨울에 내린 눈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 ⑤ 겨울에 눈이 내리면 밖으로 선뜻 나갈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10)

11 <보기>를 참고할 때, ㉮에서 ‘봄눈’이 봄의 방해자인 이유는?

오랑개 땅에는 꽃도 풀도 없으니
봄이 왔건만 봄 같지 않구나
저절로 허리가 느슨해졌으니
결코 몸매를 위함은 아니라네

胡址無花草 (호지무화초)
春來不似春 (춘래불사춘)
自然依帶緩 (자연의대완)
非是爲腰身 (비시위요신))

- ① 봄눈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 때문에
- ② 사람들에게 봄같지 않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 ③ 봄눈이 오면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에
- ④ 봄에 내리는 눈은 겨울눈과 달리 따뜻하기 때문에
- ⑤ 봄눈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1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꽃에서 봄 향기를 맡는 사람은 시인이 아니다. 일상적 관습 속에서 기계적으로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용과 같은 시인은 오히려 봄눈과 같은 겨울의 흔적을 통해 겨울옷의 옷고름에서 봄 향기를 감지한다. ‘새삼스레’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듯이 지용에게는 시간을 되감아 그것을 새롭게 할 줄 아는 상상력이 있기 때문이다. 얼음이 금 가고 파릇한 미나리의 새순이 돋고 물밑에서 꿈쩍도 않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그 섬세한 봄의 생동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리고 겨울과 봄의 그 미세한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마의 추위[꽃샘추위]’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활짝 열린 봄의 생명감은 ‘웅숭거리고 살아온 겨울의 서러운 삶’을 통해서만 서로 감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봄눈이야말로 겨울과 봄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봄의 시는 꽃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용의 상상력에 의하면 그것은 봄눈에 덮인 서늘한 멧부리에 혹은 얼음이 녹아 금이 간 그 좁은 틈 사이에 있다.

그래서 지용의 시 <춘설>은 ‘햇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로 끝나 있다. 달리는 자동차 속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달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우리의 몸은 앞으로 쏠리게 되고 그 충격을 통해 비로소 달리는 속도를 느낀다. ㉠**봄눈이 바로 봄의 브레이크와도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봄눈은 밤낮 내리는 것이 아니잖는가. 그러므로 꽃샘이나 봄눈을 통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겨울의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꺼운 솜옷을 벗고 도로 추위를 불러들여야 한다. ‘새삼스레’, ‘철 아난’, ‘도로’와 같은 일련의 시어들이 환기하는 것은 시간의 ‘되감기’이다. 그래서 “햇웃 벗고 도로 춥고 싶다.”라고 말하는 지용의 역설(逆說) 속에서 우리는 스위스의 산골짜기 깊숙이 묻혀 살던 ‘드퀸시’의 오두막집을 상상하면서 쓴 ‘보들레르’의 글 한 줄을 생각하게 한다.

시인의 방과 그 나날들을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문 열기’ 이전의 닫혀 있던 방, 햇웃을 입고 있는 좁은 공간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이전, 지용 자신의 표현대로 하면 ‘웅숭거리고’ 사는 겨울 시간이다. 바깥이 추울수록 그 내부의 공간은 한층 더 아늑하고 따뜻하며 눈보라가 치는 긴 밤일수록 그 시간은 더욱 고요하고 천천히 흐른다.

이렇게 외부와 단절된 닫힌 공간과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만이 문을 열고 바깥세상과 ‘이마받이’를 하는 ㉡**행복한 충격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햇웃 벗고 도로 춥고 싶다.’라는 지금껏 어느 누구도 느끼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소원을 품게 된다. 그러한 소망의 원형이 바로 ‘봄눈’이며 ‘꽃샘추위’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용에 의해서 한국 시의 역사상 처음으로 ‘봄의 휘방꾼’이었던 ‘봄눈’과 ‘꽃샘’이 봄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시학의 주인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12 이 글의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작가의 다른 작품과 비교하며 분석하는 관점
- ② 시어나 구성 등 작품 자체만을 중시하는 관점
- ③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관점
- ④ 시대적 현실이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관점
- ⑤ 작가의 사상이나 신념이 작품에 드러난다는 관점

(12)

13 글쓴이가 생각하는 시인의 자질로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적 관습을 충분히 습득한 사람
- ② 자신의 내면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사람
- ③ 세상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
- ④ 사물을 새롭게 볼 줄 아는 상상력이 있는 사람
- ⑤ 언행일치(言行一致)를 통해 자신의 작품 세계를 실천하는 사람

(13)

14 ㉠에서 ‘봄눈’과 ‘브레이크’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이 살면서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
- ② 대상에게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
- ③ 대상의 현재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울
- ④ 대상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촉매제
- ⑤ 대상으로 하여금 현재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존재

(14)

15 이 글을 통해 시 <춘설>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에서 화자가 두꺼운 솜옷을 벗는 이유는 추위를 통해 봄의 기운을 맞이하기 위해서야.
- ② 만일 시인이 탁 트인 공간에 살고 있었다면 1연에 나오는 ‘이마받이’를 할 수 없었을 거야.
- ③ 시인이 ‘도로 출고 싶다’고 말한 것은 겨울로 회귀하고 싶은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거야.
- ④ 시인은 물밑에서 꿈쩍도 않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모습을 통해 봄의 도래를 감지하고 있어.
- ⑤ 시인 ‘정지용’은 한국 시문학사에 남을 만큼 ‘봄눈’에 대해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을 한 셈이군.

(15)

수능특강 문학

개념학습 02 - 정석가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선왕성덕(先王聖代)에 노니와와지이다.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논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논
 구은 밤 닛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유덕(有德)하신 님을 여히와와지이다.

옥(玉)으로 련(蓮)사고줄 사교이다.
 옥(玉)으로 련(蓮)사고줄 사교이다.
 바회 우회 겹두(接柱)하 요이다.
 그 고지 삼동(三同)이 뛰거시아
 그 고지 삼동(三同)이 뛰거시아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와와지이다.

므쇠로 털락을 푼아 나논
 므쇠로 털락을 푼아 나논
 털스(鐵絲)로 주름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헐어시아
 그 오시 다 헐어시아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와와지이다.

므쇠로 한 쇼를 디여다가
 므쇠로 한 쇼를 디여다가
 털슈산(鐵樹山)애 노호이다.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와와지이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긴히든 그츠리잇가.
 ㉡즈믄 히를 ㉢외오곰 녀신들
 즘믄 히를 외오곰 녀신들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현대어 풀이]

징이여 돌이여, (임금님이) 지금에 (우리 앞에) 계십니다. / 징이여 돌이여, 지금에 계십니다.
이 좋은 태평성대에 놓고 싶습니다.

바삭바삭하는 가는 모래 벼랑에 / 바삭바삭하는 가는 모래 벼랑에 / 구운 밤 닛 되를 심습니다.
그 밤이 움이 돌아 싹이 나야만 / 그 밤이 움이 돌아 싹이 나야만 / 덕있는 임을 여의게 해 주십시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 (그 꽃을) 바위 위에 접붙입니다.
그 꽃이 삼동(세 묶음)이 피어야만 / 그 꽃이 삼동이 피어야만 / 덕있는 임을 여의게 해 주십시오.

무쇠로 옷을 마름하여 / 무쇠로 옷을 마름하여 /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혈어야만 / 그 옷이 다 혈어야만 / 억 있는 임을 여의게 해 주십시오.

무쇠로 큰 소를 지어다가 / 무쇠로 큰 소를 지어다가 / 철수산(쇠나무 산)에 놓습니다.
그 소가 쇠풀을 먹어야만 / 그 소가 쇠풀을 먹어야만 / 덕있는 임을 여의게 해 주십시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 끈이야 끈어지겠습니까?
천 년을 외로이 사신들 / 천 년을 외로이 사신들 /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 [분석 후 <해제>와 <구성>을 참고하여 해석해 보기]

{해제}

이 작품은 임과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고려 가요로, 실현 불가능한 상황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여 시상을 전 개하고 있다. 이 노래의 본사에 해당하는 2~5연은 각각 구운 밤, 옥 연꽃, 무쇠 옷, 무쇠 소를 소재로 하여,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6연은 『서경별곡』의 2연과 유사한데, 이는 6연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구 절로서 구전되는 과정에서 두 노래에 삽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주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구성}

- 1연: 태평성대를 소망함.
- 2~5연: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소망함.
- 6연: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다짐함.

제재	가정	행위	소망
구운 밤	싹이 나면	가정(불가능 상황) 이 이루어져야만 임 과 이별하겠다.	따라서, 절대로 임 과 이별하지 않겠 다.
옥 연꽃	꽃이 삼동이 피면		
무쇠 옷	그 옷이 혈어야		
무쇠 소	철수산에서 쇠풀을 먹어야		

송고미

이별의 거부 → 현세적이고 유한한 사랑 초극

STEP 01. 오늘의 국어 : 개념 체크 O, X 퀴즈

1. 이 노래는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를 이어오는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꼽는다. (O, X)
2. 정석가는 4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다. (O, X)
3. 후렴구의 기능은 연을 구분하고, 주제를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O, X)
4.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는 _____ 표현으로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5. 이 시의 모든 연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O , X)
6. [서경별곡]의 2연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연은 몇 연인가?
7. 화자는 임과 절대로 이별하지 않겠다는 소망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O , X)
8. 이 시에서 궁중 음악적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연을 찾으시오.

STEP 02. 유사 변형으로 문학 지문 뜯어 보기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선왕성덕(先王聖代)에 노니와지이다.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눈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눈
 구은 밤 닛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유덕(有德)하신 님을 여히와지이다.

옥(玉)으로 련(蓮)고줄 사교이다.
 옥(玉)으로 련(蓮)고줄 사교이다.
 바회 우회 접두(接柱)하요이다.
 그 고지 삼동(三同)이 뛰거시아
 그 고지 삼동(三同)이 뛰거시아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와지이다.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눈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눈
 털스(鐵絲)로 주롬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헤어시아
 그 오시 다 헤어시아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와지이다.

므쇠로 한 쇼를 디여다가
 므쇠로 한 쇼를 디여다가
 털슈산(鐵樹山)애 노호이다.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와지이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긴히든 그츠리잇가.
 ㉢즈믄 히를 ㉣외오곰 녀신들
 즘믄 히를 외오곰 녀신들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뜻이 분명한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한다.
- ③ 투박한 민중의 표현으로 내면을 드러낸다.
- ④ 과장된 표현을 통해 화자의 경서를 강조한다.
- ⑤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한다.

16)

02. 윗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2연	모래밭에 심은 구운 밤에 싹이 나면			
3연	옥으로 새긴 연꽃을 바위에 접붙여 세 다발의 꽃이 피면		(ㄱ) 표면적 의미	⇒ (ㄴ) 실제 의미
4연	무쇠로 지은 옷이 다 혈면			
5연	무쇠로 된 황소가 쇠 풀을 먹으면			

	(ㄱ)	(ㄴ)
①	임을 다했다.	임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②	임과 이별하겠다.	임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③	임과 이별하겠다.	임을 원망하겠다.
④	임의 죽음을 수용하겠다.	임을 원망하겠다.
⑤	임의 죽음을 수용하겠다.	임을 영원히 잊겠다.

17)

03. '6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이별의 상황을 말한다.
- ② ㉡은 임과의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말한다.
- ③ ㉢은 '오랜 세월'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은 멀리 있는 임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다.
- ⑤ ㉤은 임에 대한 사랑의 믿음이 영원할 것을 의미한다.

18)

0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려인의 화려한 문화를 알 수 있다.
- ② 향락적인 분위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 ③ 화자의 경서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④ 당시 세시 풍속의 풍경을 떠올릴 수 있다.
- ⑤ 주로 세련된 분위기의 시어를 활용하였다.

19)

05. 윗글에 대한 <보기>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이 작품은 원래 (ㄱ) **민요로 향유**되었다가 (ㄴ) **궁중 음악으로 향유**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각각의 맥락을 고려하며 이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 ① (ㄱ)일 때의 화자가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면 (ㄴ)일 때의 화자는 '신하나 백성'이겠군.
- ② (ㄱ)일 때는 이 글을 서정시라고 할 수 있지만, (ㄴ)의 경우에는 '송축가'로 보아야 맞겠군.
- ③ (ㄱ)일 때의 '임'은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겠지만 (ㄴ)일 때의 '임'은 '임금'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작품 속 제재들은 (ㄱ)과 (ㄴ)의 과정을 거치며 서민 생활과 궁중 생활에 관한 것이 섞여 있겠군.
- ⑤ 다른 연과 다른 독특한 1연의 형식은 (ㄱ)에서 (ㄴ)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일 수도 있겠군.

20)

06. <보기>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석가'의 2~5연은 각각 소재만 다를 뿐, 유사한 뜻을 담은 표현을 반복하여 특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① 화자의 의도를 비판적으로 살필 수 있게 한다.
- ② 반복을 통해 노래를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한다.
- ③ 유사한 뜻 사이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게 한다.
- ④ 시적 화자가 품은 강한 의지를 강조할 수 있다.
- ⑤ 화자의 흥에 공감하며 흥겨움을 강화할 수 있다.

21)

07.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 갠 독에 풀빛이 고운데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 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보태나니

- 정지상, <송인>

- ① 윗글과 달리 <보기>에서는 대조적 상황이 나타난다.
- ② 윗글과 <보기> 모두 이별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 ③ 윗글과 달리 <보기>는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이 드러난다.
- ④ 윗글과 <보기> 모두 과장된 표현을 통해 정서를 드러낸다.
- ⑤ <보기>와 달리 윗글은 4개의 내용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22)

수능특강 문학

개념학습 03 -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분석 후 <해제>와 <구성>을 참고하여 해석해 보기]

{해제}

이 작품은 1990년대 후반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소박하고 우직한 인물인 황만근의 생애와 그 행적을 그린 소설이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도 열성을 다하는 황만근을 바보로 취급하지만, 작가는 오히려 황만근과 대조적인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풍자한다. 현대인들의 메말라 가는 인정을 풍자하고 암울한 농촌 현실을 고발한 이 소설은 향토적인 방언의 사용과 해학적 문체가 두드러진다.

{주제}

관용과 도량을 가진 황만근의 생애와 그 행적,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세태에 대한 비판

{전체줄거리}

황만근이 실종된 것을 안 마을 사람들과 민 씨는 황만근의 집에 모이게 된다. 그러나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민 씨뿐, 다른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황만근은 어렸을 때 부터 말투가 어눌하고 행동이 우스꽝스러워서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을의 굶주림을 도맡아 하는 성실하고 바른 인물이다. 그런 황만근에게 이 장은 농민 총궐기 대회 전날,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것을 지시하고, 황만근은 밤에 경운기를 타고 군청으로 향한다. 황만근은 궐기 대회에 참가하지도 못하고 마을로 돌아오던 길에 차와 부딪쳐 사고가 나고, 결국 동사하게 된다. 민 씨는 황만근의 됃됨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묘지명을 쓰고 서울로 돌아간다.

STEP 01. 오늘의 국어 : 개념 체크 O, X 퀴즈

1. 글의 도입부에 황만근의 실종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내용에 몰입하게 한다. (O , X)
2. 황만근이 실종된 후 이장은 황만근의 실종을 걱정하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O , X)
3. 이장은 경운기를 타고 국도를 가는 것의 위험성을 모르고 황만근에게 이를 권유했다. (O , X)
4. 황영석은 황만근 대신 마을 회관 변소에서 분노를 파내며 황만근의 부재를 실감한다. (O , X)
5. 황만근은 판단 능력이 부족해 아이들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어려워했다.(O , X)
6. 이 글에서 민 씨는 중도적 입장에서 황만근의 삶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O , X)
7. 민 씨가 들은 황만근의 말을 통해 점점 늘어나는 농촌의 부채와 상부상조의 풍습이 사라진 농촌 현실을 알 수 있다. (O , X)
8. 서술자는 민 씨의 기억과 해석을 바탕으로 황만근의 말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O , X)
9. 이 글에서 3인칭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전달하고 있다. (O , X)
10. 이 글은 주인공을 이용하는 마을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O , X)

STEP 02. 유사 변형으로 문학 지문 뜯어 보기

황만근이 없어졌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일을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열두 시가 될락 말락 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햇대의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 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소 여물도 못 하러 가고 이기 뭐라. 스무 바리나 되는 소가 한꺼분에 밥 굶는 기 중요한가, 바보 자석 하나가 어데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기 중요한가, 씨그랄.”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龍王祭)에 축(祝)을 초(草)하는 황재석 씨가 받았다.

“그래도 질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기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라. 반그이, 아이다, 만그이가 여게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분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아이지요,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개인지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습다.”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 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어제 궐기 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궐기 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역섯 명의 황 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이라고 밋 밋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도 모 있다는 기 백 밋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반그이는 돼지고기 반 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칸께.”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 씨는 이장이 궐기 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넰던 것을 기억해 냈다.

“그제 밤에 내일 궐기 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농민보고 농민 궐기 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 씨는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카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 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 마나 어데서 술 처먹고 주절러 앉았을 끼라. 백 리 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이 시간도 마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 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 난 경운기를.”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몬다 뿌이지.”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 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잖습니까.”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울매나 바쁜 사람인데 경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 가이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갔으마 군 대회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 가이고 온 사람도 밋 없더라. 소리마 밋 분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쾌이맨구로 뽕뽕 달리는데 받치만 우애라고. 다른 동네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뽕어.”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잖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 준다면서요. 허허, 나 참.”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 놓더이,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해 싸. ㉠누구 맨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기어이 민 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구요.”

01.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 ③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
- ④ 수식어를 통해 각각의 인물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3)

02. 이 글에서 사투리와 비속어를 사용하여 얻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사실성을 높여주고 있다.
- ② 해학적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③ 토속적이며 향토적인 느낌을 살리고 있다.
- ④ 인물의 말이 논리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하고 있다.
- ⑤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24)

03. 이 글에서 ‘민 씨’의 역할로 적절한 것은?

- ① 이장과 마을 사람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 ② 만근에 대한 독자의 동정과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③ 대화를 주도하여 만근의 실종의 원인을 찾으려 하고 있다.
- ④ 만근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쌓인 오해를 불식시키고 있다.
- ⑤ 만근이 마을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25)

04. 이 글의 인물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 씨는 이장의 행동이 갖는 부당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
- ② 황재석은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으며 만근이를 걱정하고 있어.
- ③ 황만근은 평생 거의 외박이 없을 정도로 매우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었어.
- ④ 이장은 사라진 만근은 걱정하지 않고 자기 일에만 신경을 쓰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 ⑤ 황동수는 어색한 분위기에서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일부러 바보처럼 행동하고 있어.

26)

05. 이장과 민 씨의 말하기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장은 황만근의 실종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말하고 있다.
- ② 이장은 민 씨가 자신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우기며 공격하고 있다.
- ③ 민 씨는 성량을 크게 높여 이장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민 씨는 이장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비난하고 있다.
- ⑤ 이장은 자신이 이장으로서 해야 일을 내세우면서 트럭을 타고 간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27)

06. <보기>를 참고할 때, ㉠이 의미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반편[半偏]【명사】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아주 낮은 사람.

- ① 민 씨의 지능이 원래부터 이장보다 높지 않았다는 것
- ② 민 씨가 이장의 말을 알아듣기에는 지능이 매우 낮다는 것
- ③ 민 씨가 황만근과 어울려 다녀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는 것
- ④ 민씨가 황만근처럼 지능이 낮아져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
- ⑤ 민 씨가 예전에는 황만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변했다는 것

28)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마흔다섯 살의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 회관 변소에서 분노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만그이 자석이 있었으마 내가 돈을 백만 원 준다 캐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아이구, 이 망할 놈의 동 냄새. 여리가 싸 놔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기 곡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마.”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병글병글 웃으면서.

“만그이가 있었으마 저 거름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만그이가 도대체 어데 갔노.”

마을 회관 곁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 먹는 여씨 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노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노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황영석처럼 제가 찢었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가 뿌리지는 않았다.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잣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거름을 가져다 주었다.

“만그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가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또는 물어보나 마나 명약관화한 일을 두고도 황만근을 들먹였다.

“만그이도 알 낀다.”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면 ‘황만근가’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략)

황만근,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神智)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듯이 덮어 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대어 알뜰대기를 까 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들이 빛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07. 서술자가 ㉠에서 황만근에 대한 호칭을 ‘황 선생’으로 바꾼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전통적인 묘지명의 양식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 ② 황만근이 아이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 ③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 ④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으로부터 배운 것이 많았기 때문에
- ⑤ 황만근이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29)

08. 마을 사람들에게 ‘황만근’이 갖는 존재의 의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을의 굶은 일을 나서서 하는 존재
- ②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존재
- ③ 마을의 앞날을 제시하며 사람들을 이끄는 존재
- ④ 아이들 간의 시시비비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존재
- ⑤ 마을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성심을 다해 하는 존재

30)

09. ‘묘지명’ 속의 황만근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리석게 태어났으나 후년에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사람
- ② 부지런하고 근면하였으며, 어려움을 나누고 공을 남에게 돌렸던 사람
- ③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함부로 가르치려 들지 않았던 사람
- ④ 하루하루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언제나 자기 성찰이 엄격했던 사람
- ⑤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신 효자이자, 아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이해심이 깊었던 아버지

31)

10.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Q. 바보는 성석제 소설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성석제의 인물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애처로운 사람들이고, 감동을 만들어 내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성석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아 왔어요. 마을 중심부와 떨어진 외곽에서 살았고, 아이들한테도 더 아이 취급을 당하면서 지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비인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굶어 죽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공동체였으니까. 농촌 공동체에서 그런 일은 없었어요.

- ① ‘황만근’은 작가가 말하는 바보형 인물이군.
- ② 작가는 자신이 어렸을 적에 본 바보의 모습을 토대로 ‘황만근’이라는 인물을 창조했어.
- ③ 작가가 어릴 적에 본 ‘바보’와 달리 황만근은 아이들에게 더 아이 취급을 받지 않고 있네.
- ④ 작가가 어릴 적에 보았던 ‘바보’와 같이 ‘황만근’도 마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죽은 것이군.
- ⑤ 작가가 어릴 적에 살았던 마을과는 달리 ‘황만근’은 마을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어.

32)

수능특강 문학

개념학습 04 - 이춘풍전



▶ [분석 후 <해제>와 <구성>을 참고하여 해석해 보기]

{해제}

이 작품은 기생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인물인 춘풍을 주인공으로 하여, 조선 후기의 부정적인 세태를 비판한 풍자 소설이다. 춘풍은 무능하고 방탕한 인물로, 기생 추월의 유혹에 넘어가 집안 이 몰락할 위기에 처한다. 이때 남장을 하고 나타난 아내의 활약으로 위기를 모면한다. 남편 때문에 몰락한 가정이 슬기롭고 유능한 아내의 활약으로 재건되는 이야기를 통해 가부장적인 남성 권력의 횡포와 배금주의 풍조를 풍자하고,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주제}

허위에 가득 찬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비판과 진취적인 여성상의 제시

{전체줄거리}

서울 다락골에 사는 이춘풍은 밤낮으로 놀러 다니며 가산을 탕진하는 등 방탕한 삶을 살지만, 아내가 실 새 없이 품 팔이를 하며 돈을 모아 가세가 풍족해지게 된다. 그러자 춘풍은 집안 재물을 다 챙기고, 호조 돈 이천냥을 빚내어 평양으로 장사를 떠난다. 평양에 간 춘풍은 기생 추월에게 빠져 돈을 몽땅 빼앗기고, 그 집에서 사환 노릇을 하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아내는 남편을 찾기 위해 평양 감사로 부임하는 김 승지를 따라 비장 차림으로 남장을 한 채 평양에 도착한다. 비장이 된 춘풍의 아내는 추월을 징벌하고, 돈을 되찾아 춘풍에게 돌려준다. 돈을 받은 춘풍은 서울 집에 와서 아내에게 돈을 벌었다고 허세를 부린다. 이때 다시 아내가 비장 차림을 하고 춘풍에게 나타나 음식을 내오라고 하며 추월의 집에서 춘풍이 사환 노릇을 했던 사실을 말하니, 춘풍이 당황하며 아내가 들을까 전전긍긍한다. 비장과 춘풍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비장의 정체가 아내라는 것이 밝혀지고, 이후 춘풍은 그동안의 생활을 청산하고, 집안을 다스리는 데에 힘쓴다.

{구성}

부잣집의 독자인 이춘풍이 재물을 탕진하고 아내에게 집안을 맡김 → 아내의 노력으로 여유가 있어짐 → 춘풍이 아내를 욕박질러 이천냥을 빚내어 장사를 떠남 → 춘풍이 추월에게 홀려 돈을 다 털리고 사환 노릇을 함 → 중략 부분(소식을 들은 부인이 남장을 하고 감사의 비장으로 평양으로 떠남 → 비장으로 변장한 아내는 춘풍을 혼내고 추월에게서 돈을 찾아 줌) → 춘풍이 돌아와 돈을 번 것처럼 의기양양해하며 아내를 구박함 → 아내가 비장 복장으로 나타나 춘풍을 비판함 → 춘풍이 개과천선하여 잘 살음

• 엮어 읽기

까투리 홀로 경황없이 물러서니, 장끼란 놈 거동 보소. 콩 먹으러 들어갈 제 열두 장목 펼쳐 들고 꾸벅꾸벅 고개 조아 조츠조츠 들어가서 반달 같은 허뿌리로 들입다 짹 짹이니 두 고패 둥그레지며 머리 위에 치는 소리 박랑사중에 저격시황하다가 버금 수레 마치는 듯 와지곤 똑딱 푸드득 변통없이 치었구나.

까투리 하는 말이,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의 말 잘 들어도 패가(敗家)하고, 계집의 말 안 들어도 망신(亡身)하네.”

까투리 거동 볼작시면, 상하평전 자갈밭에 자락머리 풀어 놓고 당굴당굴 뒹굴면서 가슴 치고 일어앉아 잔디풀을 쥐어 뜯어 애통하며 두 발로 땅땅 구르면서 봉성지통(崩城之痛) 극진하니, 아홉 아들 열두 딸과 친구 벗님네들도 불쌍타 의논하며 조문 애곡하니 가련 공산 낙목천에 울음소리뿐이로다.

- <장끼전> 중에서

→ 춘풍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내세우며 평양행을 감행한다. 그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말리는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뜻을 관철한다. 이러한 내용은 <장끼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을 반영한 것이며, 더 근원적으로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약자를 억누르는 사회를 반영한 것이다. 결국 이춘풍은 아내에게 더할 수 없는 수모를 받게 되고, <장끼전>의 까투리는 남편인 장끼가 죽자 곧 개가(改嫁)를 한다. 이는 당시 유교 도덕에 대한 비판과 풍자라고 볼 수 있다.

STEP 01. 오늘의 국어 : 개념 체크 O, X 퀴즈

1. 춘풍은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거덜내고 아내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방탕하고 무능력한 인물이다. (O , X)
2. 춘풍은 재산을 잃기 전에도 추월의 집에서 남루한 차림으로 지내고 있었다. (O , X)
3. 춘풍은 자신의 아내가 비장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모른척 하고 있다. (O , X)
4. 추월은 이 소설에서 끝까지 춘풍의 재산을 뜯어내두고 모른척 하는 부도덕성을 보여주며, 매질 앞에서도 쉽사리 돈을 내지 않으려하는 집착적인 모습을 보인다. (O , X)
5. 이 소설에서 춘풍의 아내는 적극적으로 재산을 회복하려하고, 남편을 위기에서 꺼내주는 조선 후기 여성의 일반적인 모습을 대변한다. (O , X)
6. 이춘풍은 무능하고 위세만 부리다 수모를 겪는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 당대 가부장적 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 (O , X)
7. 춘풍이 추월에서 빼앗긴 돈은 육전냥이다. (O , X)
8. 아내는 춘풍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O , X)
9. 춘풍은 집으로 돌아와서 마치 자신이 돈을 번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다. (O , X)
10. 춘풍의 아내는 춘풍이 다시 교만하게 굴자 무엇으로 변장했다.

STEP 02. 유사 변형으로 문학 지문 뜯어 보기

추월의 거동보소. 춘풍의 재물을 빼앗고 팔세하여 내친다. 슬픈 거동 가련하다. 만나 보면,

“내 눈에 보기 싫다.”

석면 면경 헛던지며 생증내어 구박할 제, 성외(城外) · 성내(城內) 한량에게 의론하되 ㉠들경막의 장작인가, 전당(典當)집의 은촛대냐, 썩은 나무 박힌 뿌리런가. 이러할 줄 몰랐던가.

“어디로 갈라시오. 노자가 부족하면 한 대나 보태시오.”

돈 한 돈 내어주며 바빠 나가라 재촉하니, 춘풍의 거동 보소. 분한 마음 폭발하여 추월에게 하는 말이,

(A) “우리 둘이 갓 만나서 원앙금침 마주 누워 불원상리(不願相離) 굳던 언약 태산같이 언약하여 대동강이 마르도록 떠나
가지 말래더니, 이렇듯 깊은 맹세 농담인가 진정인가. 이제 이 말 웬 말인가.”

추월이 이 말 듣고 변색하여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내 말을 들어보소. 청루 물정 몰랐던가. ㉡장 낭부 · 이 낭청도 동가식 서가숙(東家食西家宿)하고 노류장화(路柳牆花)는
인개가절(人皆可折)이라. 평양 기생 추월 성식 몰랐던가. 자네가 가져온 돈냥 혼자 먹던가.”

이같이 구박하여 등 밀치며 어서 바빠 가라 하니, 춘풍이 분한 중에 탄식하며 전면 기둥 비켜서서 이리저리 생각하니 한심하고 가련하다. 집으로 가자 하니, 무면도강동(無面渡江東)이오, 처자도 부끄럽고, 또한 막중 호조 돈 2천 냥을 내어다가 한푼 없이 돌아가면, 금부옥(禁府獄)에 가두고 주장대로 지르면 속절없이 죽겠으니 서울로도 못 가겠고, 동서 구걸하자니 그도 또한 못 하겠고, 불원천리 가자니 노자 한푼 없으되 그도 또한 못 하겠다. 이를 장차 어찌하리. 이럴 줄을 몰랐던가. 후회막급 창연하다. 대동강 깊은 물에 풍덩 빠져 죽자하니 그도 차마 못 하겠고, 석자 세치 지자 수건 목을 매어 죽자 하니 이도차마 못 하겠네. 답답한 이내 일을 어찌 하면 옳단 말이고. 평양 성내 걸인 되어 이 집 저 집 빌자 하니 노소 인민 아동 주줄 이놈 저놈 꾸짖으니 결식도 못 하리라. 어디로 가잔 말인가.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추월 앞에 나가 앉아 간절히 비는 말이,

“추월아, 추월아, 내 말 잠깐 들어 보라. 우리 조선이 인정지국(人情之國)이어든 어찌 그리 박절한가. 날 살리게 날 살리게. 내가 자네 집에 도로 있어 물이나 길고 불 사환(使喚)이나 하고 있으면 어떠할고.”

추월이 거동 보소. 눈을 흘겨 보면서,

“여보소 이 사람아, ㉢자네가 전 행실을 못 고치고 ‘하네’소리 하려면 내 집 다시 있지 마소.”

이렇듯이 구박하니 춘풍이 하릴없어 ‘아가씨’ 말이 절로 난다.

〈중략〉

이때 평양 비장으로 회계 비장을 겸하고, 분부하여 추월을 잡아들여 돈 5천 냥 바치라 하시니, 뉘 영이라 거역할까. 성화같이 재촉하여 불일 내에 받아 가니, 춘풍이 비장 덕에 돈 받아 실어 놓고, 갓 · 망건 · 의복 치레하여 은안준마(銀鞍駿馬) 높이 타고 경성을 올라와서 제 집을 찾아가니, 이때 춘풍의 처 문 밖에 썩 나서서 춘풍의 소매 잡고 감짝 놀라며 하는 말이,

㉣“어이 그리 더디던고. 장사에 소망 얻어 평안히 오시니까?”

춘풍이 반기면서,

“그새 잘 있던가.”

춘풍이 20아리 돈을 여기저기 벌여 놓고 장사에 남긴 듯이 의기양양하니,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주찬을 소담히 차려 놓고,

“자시오.”

하니, ㉤저 잡놈 거동 보소. 없던 교태(驕態) 지어 내어 제 아내 꾸짖으되,

“안주도 좋지 않고 술 맛도 무미하다. 평양서는 좋은 안주로 매일 장취하여 입맛이 높았으니, 평양으로 다시 가고 싶다. 아무래도 못 있겠다.”

젓가락도 그릇 박고 고기도 씹어 버리며 하는 말이,

“평양 일색 추월이와 좋은 안주 호강으로 지내더니, 집에 오니 온갖 것이 다 어설프다. 호조 돈이나 다 셈하고 약간 전량 소쇄하여 전 주인에게 환전 부치고 평양으로 내려가서 작은집과 한가지로 음식을 먹으리라.”

그 거동은 차마 못 볼러라.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춘풍을 속이려고 상을 물려 놓고 황혼시에 밖에 나가 비장 복색 다시하고 오동수복(烏銅壽福) 화간죽을 한 발이나 빼쳐 물고 대문 안에 들어서서 기침하고,

“춘풍 왔느냐?”

춘풍 자세히 보니 평양서 돈 받아 주던 회계 비장이라. 춘풍이 황겁하여 버선발로 뛰어 내달아 복지하여 여쭙오되,
 “소인이 오늘 와서 날이 저물어 명일에 댁 문하에 문안코자 하옵더니, 나으리 먼저 행차 하옵시니 황공 만만하여이다.”
 “내 마침 이리 지나가다가 너 왔단 말 듣고 네 집에 잠깐 들렀노라.”
 방 안에 들어가니, 춘풍이 아무리 제 안방인들 어찌 들어갈까. 문 밖에 섰노라니,
 “춘풍아, 들어와서 말이나 하여라.”
 “나으리 좌정하신데 감히 들어가오리까.”
 “잔말 말고 들어오라.”
 춘풍이 어찌지 못하여 들어오니 비장이 가로되,
 “그 때 추월에게 돈을 진작 받았느냐?”
 “나으리 덕택에 즉시 받았나이다. 못 받을 돈 5천 냥을 일조에 다 받았사오니, 그 덕택이 태산 같사이다.”
 “네 집에 술이 있느냐?”
 춘풍이 일어서서 주안을 드리거늘, 비장이 꾸짖어 왈,
 “네 계집은 어디 가고 내게 내외시키느냐. 네 계집 빨리 불러 술 준비 못 시킬소냐.”
 춘풍이 황겁하여 아무리 찾은들 있을소냐.

- 작자미상, <이춘풍전>

01. <보기>는 위 글의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ㄱ. 추월은 춘풍을 유혹하여 모든 재물을 빼앗는다.
- ㄴ. 춘풍은 추월에게 옛 정을 하소연하며 빌붙으려 한다.
- ㄷ. 추월은 춘풍에게 무안을 주며 하인 노릇을 허락해 준다.
- ㄹ. 춘풍은 돈을 번 것처럼 의기양양한 태도로 집에 돌아온다.
- ㅁ. 춘풍은 집으로 찾아온 비장 때문에 당황하며 안절부절못한다.

- ① ㄱ에서 ㄷ으로 돌변하는 태도로 보아 애초 추월의 목적은 돈이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ㄴ과 ㄹ에 나타난 춘풍을 보면 인물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을 느낄 수 있다.
- ③ ㄷ의 상황이 춘풍으로 하여금 ㄹ의 상황을 만들게 하는 각성의 계기를 주고 있다.
- ④ ㄹ과 ㅁ에서 대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춘풍의 모습은 독자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 ⑤ ㅁ으로 보아 춘풍은 자신의 거짓이 아내에게 탄로날까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02. (A)를 볼 때 춘풍의 처지와 심정을 적절하게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은?

- ①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싹고 빈 배 저어 오노매라.
- ② 나무도 병이 드니 정자라도 설이 었다.
 호화히 썼을 때문 울이갈이 다 쉬더니,
 잃지고 가지 꺾은 후는 새도 아니 앓는다.
- ③ 흥진을 다 떨치고 죽장망해 집고
 요금을 빗기 안고 서호로 들어가니,
 노화에 떼 많은 갈매기는 내 벗인가 하노라.
- ④ 간 밤에 울던 여흘 슬피 울어 지내여다.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 울어 보내도다.
 저 물이 거스리 흐르고져 나도 우려 네리라.
- ⑤ 마음아, 너는 어찌 늘 젊어 있느냐.
 내가 늙을 때면 너인들 늙지 않겠는가.
 아마도 너를 좇아 다니다가 남을 웃길까 두렵구나.

34)

0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인물이 처한 상황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 : 자신의 입장에서 행동의 변화에 대한 합리화를 하고 있다.
- ③ ㉢ : 호칭과 말하기 방식에서 화자의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④ ㉤ : 자신이 도와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다.
- ⑤ ㉥ :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하며 현장감을 주고 있다.

35)

04. 위 작품에 대한 <보기>의 평가에서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춘풍의 처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이지적이다. 그녀는 일상적 가사는 물론이고 치부에 능하며, 고난에 처한 남편을 구출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노력한다. 그녀는 목적을 위해서는 무리한 방법까지 사용할 정도이다. 남편을 쉽게 용서한다는 점에서 그녀는 전통적 윤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나, 시대 조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남편을 승복시키고 회개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위 작품은 ()고 할 수 있다.

- ① 조선 후기에 고조되고 있던 여성들의 남녀 평등 의식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조선 후기 엄격한 신분 질서가 붕괴되어 가는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③ 완전한 남녀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여성들의 열망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④ 자신들의 모습을 찾고자 노력하는 양반들의 자기 반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⑤ 남성 중심의 당대 사회를 비판하고 새로운 진취적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36)

“이놈 네 들으라. 네가 이춘풍이냐?”
 춘풍이 대답하되,
 “과연 그러하오이다.”
 “막중 호조(戶曹)¹⁾ 돈 수천 냥을 가지고 사오 년이 되도록 일 푼 상납(上納)²⁾ 아니하니, 호조 관자(關子) 내어 너를 잡아 죽이라 하였으니, 너는 그 돈을 다 어찌하였는가. 매우 치라.”
 분부하니, 사령놈이 매를 들고 십여 개를 중타하니 춘풍의 다리에 유혈이 낭자하거늘 비장³⁾이 보고 차마 더 치진 못하고,
 “춘풍아, 네 그 돈을 어디다 없앴느냐? 바로 아뢰라.”
 춘풍이 대답하되,
 “호조 돈을 가지고 평양 와서 일 년을 추월과 놀고 나니 일 푼도 남지 않고, 달리 한 푼 쓴 일 없삽나이다.”
 비장이 이 말 듣고 이를 갈고 사령에게 분부하여 추월을 바빠 잡아들여 형틀에 올려 매고 별태장⁴⁾ 골라 잡고,
 “일분(一分)도 사정 없이 매우 치라.”
 호령하여 십여 장을 중치하고,
 “이년 바빠 다짐하라. 네 죄를 모르느냐?”
 추월이 정신이 아득하여 겨우 여쭙오되,
 “춘풍의 돈은 소녀에게 부당하여이다.”
 군노 등이 두 눈을 부릅뜨고 형장(刑杖)⁵⁾을 높이 들어 백일청천(白日青天) 하듯 만첩청산 우레 하듯 금강 소리 호통하며 하는 말이
 “네 모두 발명(發明)⁶⁾치 못할까? 너를 우선 죽이리라.”
 하고 주장(朱杖)⁷⁾대로 지르면서 쇠두 대를 매질하고,

“바빠 다짐 못할쏘냐?”

서리같이 호령하니, 추월이 기가 막혀 삼혼칠백(三魂七魄)⁸⁾ 달아나던 혼미⁹⁾ 중에 겁내어 죽기를 면하려 하고 애걸하여 어쭈오되,
“국법(國法)도 엄숙하고 관령(官令)이 지엄하고, 나릿님 부분도 엄하오니, 춘풍이 가져온 돈을 감영(監營) 분부대로 소녀가 바치리다.”
비장이 하는 말이,

“호조에서 관자 놓아 너를 빨리 죽이라 하였으되, 네 죄를 네가 알고 돈을 모두 바치겠다고 하니 너를 살려 주거니와, 호조 돈 이자는
자모지예(字母之例)¹⁰⁾로 오천 냥을 전부 궤봉(櫃封)¹¹⁾하라.”

추월이 여쭈오되,

“십 일 말미를 주옵시면 오천 냥을 바치리다.”

하고 다짐을 써서 올리거늘, 그제야 비장이 춘풍이와 추월이를 형틀에서 내려 놓고 춘풍을 불러 다시 가만히 약속하되,

“열흘 안으로 전부 받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라. 내가 또한 유고(有故)¹²⁾하여 먼저 떠나 올라가니, 네 서울로 올라오거든 댁 문하(門下)에 문안하라.”

춘풍이 감사하여 내려서서 여쭈오되,

“나으리 덕택으로 호조 돈을 다 수쇄¹³⁾하오나이다.”

비장이 사또 전에 춘풍과 추월을 처치한 말씀을 날날이 고하고 조용히 어쭈오되, “내일 하직하고 경성으로 가려고 하오니, 사또님 덕
택으로 추월에게 분부하여 자모지예로 오천 냥을 모두 수쇄하여 춘풍에게 보내기를 천만 바라나이다.”

사또 허락하고, 이튿날 하직하고 상급(賞給)¹⁴⁾한 돈 수만 냥을 환전(換錢)¹⁵⁾으로 부쳐놓고, 인하여 발행(發行)¹⁶⁾할 새 평양을 하직하고
경성으로 올라와서 환전 돈을 즉시 찾고 춘풍이 오기를 기다리더니.

- 작자 미상, <이춘풍전(李春風傳)>

[1] 춘풍의 아내가 추월을 문초하여 돈을 되찾음.

[어휘 풀이]

1) 호조(戶曹) - 조선 시대에, 육조 가운데 호구, 공부, 전량(田糧), 식화(食貨)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2) 상납(上納) - 나라에 조세를 바침. 3) 비
장(裨將) - 조선시대에, 감사(監司) · 유수(留守) · 병사(兵使) · 수사(水使) · 건외 사신(使臣)을 따라다니며 일을 돕던 무관 벼슬. 4) 별태장 - 불기를 치는
데 쓰던 형구. 5) 형장(刑杖) - 예전에, 죄인을 신문할 때에 쓰던 몽둥이. 6) 발명(發明) - 죄나 잘못을 밝힘. 7) 주장(朱杖) - 주릿대나 무기 따위로 쓰던
붉은 칠을 한 몽둥이. 8) 삼혼칠백(三魂七魄) - 세 가지 혼과 일곱가지 넋. 9) 혼미(昏迷) - 의식이 흐림. 10) 자모지예(字母之例) - 1년간의 이자를 원금
의 2할 이내로 정한 이율. 11) 궤봉(櫃封) - 물건을 궤에 넣고 봉함. 12) 유고(有故) - 특별한 사정이 있어. 13) 수쇄(收刷) - 흠어진 재산이나 물건을 거
두어 정돈함. 14) 상급(賞給) - 상으로 준 돈이나 물건. 15) 환전(換錢) - 환표로 보내는 돈. 16) 발행(發行) - 길을 떠남.

05.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주로 환상적이고 전기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시련 극복 과정을 통해 영웅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빌려 해결하고 있다.
- ④ 능력보다는 외모만을 인간의 가치로 중시하던 당시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⑤ 남성보다는 여성을 우위에 두어 무력한 남성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37)

06.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시대 상황이 아닌 것은?

- ① 돈으로 벼슬을 사고팔고 하였다.
- ② 죄인들은 사사로이 죽일 수 있었다.
- ③ 신용으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 ④ 나랏돈을 빌려 쓰려면 이자를 갚아야 했다.
- ⑤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신분이 하락하기도 하였다.

38)

07. 이 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울을 떠날 때 아내에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제주에 부임한 배 비장은 기생 애랑에게 빠져 이까지 뽑아 준 정 비장을 비웃다가 애랑을 두고 방자와 내기를 걸게 되었다. 봄놀이판에 따라나온 배 비장은 애랑의 모습을 보고 반하여 방자를 시켜 애랑의 집을 알아낸다. 배 비장은 개가죽 옷을 입고 애랑의 집을 찾아가지만, 방자가 애랑의 남편 행세를 하며 들이닥치자, 피나무 궤에 들어가서 몸을 숨겼다. 궤가 바다에 던져진 줄 안 배 비장이 궤 속에서 도움을 청하자, 뱃사공으로 가장한 사령들이 궤 문을 열어주었다. 배 비장은 알몸으로 허우적거리며 동헌대청에 머리를 부딪쳐 온갖 망신을 당하였다.

- <배비장전>의 줄거리

- ① <보기>와 이 글 모두 인물의 정조 관념이 없음을 회화화시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② <보기>의 경우 남성 조력자가 등장하는 반면 이 글의 경우 여성 조력자가 등장한다.
- ③ <보기>와 이글 모두 여성 주인공에 의해 남성 주인공의 허위 의식이 폭로되고 있다.
- ④ <보기>의 경우 주 무대가 서울이면, 이 글의 경우 주 무대가 평양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보기>의 경우 남성 주인공의 신분이 낮은 반면 이글의 경우는 남성 주인공의 신분이 높다.

39)

춘풍의 처 문 밖에 썩 나서서 춘풍의 소매 잡고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어이 그리 더디던고. 장사에 재미 보고 평안히 오시니까?”

춘풍이 반기면서,

“그 새 잘 있던가?”

㉠춘풍이 이십 바리 돈을 여기저기 벌이고 장사에 남긴 듯이 의기양양하니 춘풍 아내 거동보소. 주찬¹⁾을 소담히²⁾ 차려 놓고, “자시오.”

하니 저 잡놈 거동 보소. 없던 교태(驕態)³⁾ 지어 내어 제 아내 꾸짖으되,

“안주도 좋지 않고 술 맛도 무미하다. 평양서는 좋은 안주로 매일 취하여 입맛이 높았으니, 평양으로 다시 가고 싶다. 아무래도 못 있겠다.” (중략)

[1] 춘풍이 아내 앞에서 허세를 부림.

[나] ㉡그 거동은 차마 못 볼러라.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춘풍을 속이려고 상을 물려 놓고 황혼 때에 밖에 나가 비장 차림 다시 하고, 대문 안에 들어가서 기침하고,

“춘풍아, 왔느냐?”

춘풍이 자세히 보니 평양서 돈 찾아 주었던 회계 비장이라, 춘풍이 깜짝 놀라 버선발로 뛰어 내달아 앞드려 여쭙으되,

“소인이 오늘 와서 날이 저물어 내일 댁에 댁 문안코자 하옵더니, 나으리 먼저 행차하옵시니 황공하여이다.”

“내 마침 이리 지나가다가 너 왔단 말 듣고 네 집에 잠깐 들렀노라.”

방안에 들어가니, 춘풍이 아무리 제 안방인들 어찌 들어올까? 문 밖에 섰노라니,

“춘풍아, 들어와서 앉거라.” (중략)

㉢춘풍이 황공하여 밖으로 내달아서 아무리 제 계집을 찾은들 어디 간 줄 알리요. 주저주저하더라.

비장이 꾸짖어 말하기를,

“네 계집을 어디 숨기고 나를 아니 뵈는고?”

차월피월⁴⁾하니,

“너는 벌써 잊었느냐? 평양 일을 생각하여 보라. 네가 집에 왔다고 그리 체중한⁵⁾ 체하느냐?”

춘풍이 갈분⁶⁾을 가지고 부엌에 내려가 죽우는 꿀은 차마 볼 수 없더라. 한참 꿈적여서 쑤어 들이거늘, 비장이 조금 먹는 체하고 춘풍을 주며,

“먹으라. 추월의 집에서 깨어진 현 사발에 누른 밥 된장덩이를 찌그러진 숟가락도 없이 먹던 생각하고 먹으라.”

춘풍이 받아먹으며 제 아내가 밖에서 다 듣는가, 속으로 민망히 여기더라. 비장이 말하되,

“밤이 깊었으니 네 집에서 자고 가리라.”

하고 의복 벗고 갓 망건을 벗으니, 춘풍이 감히 가란 말을 못하고 여러해 만에 그리던 아내 만나서 잘 잘까 하였더니, ㉣비장이 잔다

하니 속으로 민망히 여기더라.

갓, 망건 벗어 놓고 옷옷을 훨훨 벗은 후 일어서니 완전한 제 계집이라. ㉔춘풍이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분명한 제 계집이라. 춘풍이 어이없이 말없이 앉아 있으니 춘풍의 처 달려들며,

“여보소, 아직도 나를 모르시오?”

춘풍이 그제야 아주 깨닫고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마주잡고,

“이것이 웬일인가? 평양 회계 비장이 지금 내 아내 될 줄 어이 알리.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하며 원앙 금침에 옛정을 다시 이루니 은근한 정이 비할 데 없더라.

- 작자 미상, <이춘풍전(李春風傳)>

[2] 비장이 아내였음을 춘풍이 알게 됨.

[어휘 풀이]

1) 주찬(酒饌) - 술과 안주를 함께 이르는 말. 2) 소담하다 - 음식이 풍족하여 먹음직하다. 3) 교태 - 교만한 태도. 4) 차월피월(此月彼月) - 이 달 저 달 하고 자꾸 기한을 미루는 모양. 5) 체중(體重)한 - 지위가 높고 점잖은. 6) 갈분(葛粉) - 칩뿌리를 짓쪄어 물에 담근 뒤 가라앉은 앙금을 말린 가루.

08.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춘풍과 아내는 상호 대립하며 불화를 일으키고 있군.
- ② 추월은 이춘풍의 권세에 의지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군.
- ③ 아내는 남녀의 지위를 역전시킴으로써 여성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이춘풍은 허세와 위선에 가득 찬 양반들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는군.
- ⑤ 화목하고 안락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이춘풍의 소망이 나타나고 있군.

40)

09. ㉔~㉔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서술자의 개입이란, 서술자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인물의 언행 등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한다. 서술자의 개입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가능하며, 특히 판소리계 소설에서 빈번히 나타난다.

- ① ㉔
- ② ㉔
- ③ ㉔
- ④ ㉔
- ⑤ ㉔

41)

10. <보기>와 같은 사회를 고려할 때, 이 소설이 당대의 여성들에게 주었을 효과를 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선 왕조는 유교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하는 가부장적 질서가 강요되는 사회였다. 따라서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 중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 담당자로 인식하였다. 여성을 출산, 양육, 가사 노동에 전념시키기 위해 법적,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두어서 재혼 금지, 남녀의 내외법, 칠거지악과 같은 부녀의 도리라는 것을 만들었다.

- ① 여성들로 하여금 유교적인 규범 탈출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 ② 남성이 여성의 지시를 받는 상황을 통해, 남녀의 지위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③ 가정을 벗어나 성공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성 해방의 잠재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다.
- ④ 소극적인 대응이지만 남편을 구하기 위해 나서는 새로운 열녀상을 보여 주었다.
- ⑤ 남성을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여성을 보여 주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여성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42)

수능특강 문학

개념학습 05 - 산돼지



원봉의 개 이야기에 등장하는 대상과 관련된 인물과 상징적 의미

대상	관련 인물	상징적 의미
상놈	최원봉의 생부모	출생의 비밀을 빚댄 이야기임.
양반	최 주사댁	
삼살개	최원봉	
보물, 음식	최영순	
도적놈	차혁	

▶ [분석 후 <해제>와 <구성>을 참고하여 해석해 보기]

{해제}

이 작품은 1920년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과 현실적인 무기력함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는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을 담은 희곡이다. 제목인 '산돼지'는 저돌적이고 단호한 주인공의 성격을 드러내는 동시에,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고뇌하는 주인공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원봉이 겪는 내면적 갈등은 원봉의 몽환병과 몽환 장면을 통해 구체화되며, 특히 몽환 장면은 표현주의 기법이 사용되어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여 준다.

{주제}

주어진 숙명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한 식민지 지식인의 방황과 좌절

{전체줄거리}

아버지가 동학군이었던 원봉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어머니를 잃는다. 동학군 동료였던 최 주사는 원봉을 거두어들여 양육하고, 죽으면서 아내에게 딸 영순과 원봉을 혼인시키라는 유언을 남긴다. 청년회 상무 간사로서 바자회의 수익금을 유용해 청년회로부터 불신임을 당한 원봉은 약혼녀 정숙을 배척하고, 정숙은 다른 남자와 함께 일본으로 도망간다. 사람들은 이런 괴팍하고 저돌적인 성격을 지닌 원봉을 '산돼지'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원봉은 자신의 돌출적인 행동에 대해 정신적 갈등을 일으켜 몽환병에 시달린다. 최 주사댁은 남편의 유언을 덮어 두고 영순을 원봉의 친구인 혁과 혼인시키려고 한다. 원봉은 꿈을 통해 출생의 비밀을 알아내고 동학군인 아버지도 만나지만, 현실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공상만 한다. 원봉에게 실망하고 한 유학생을 따라 일본으로 떠났던 정숙이 다시 원봉을 찾아온다. 그러나 원봉은 다시 돌아온 정숙을 거부하고, 정숙은 원봉에게 마지막으로 조명희의 시를 읊어 달라고 부탁한다.

제1막에서는 청년회로부터 불신임을 당한 원봉과 차혁의 갈등, 그리고 원봉의 약혼녀 정숙의 도망 등이 제시된다.

제2막에서는 원봉의 출생의 비밀과, 영순을 사이에 둔 원봉과 차혁의 관계가 그려진다. 더불어 몽환 속에서 동학란 속 고초를 겪는 부모의 모습을 본 원봉이 동학 이념을 과제로 안고 고민하는 모습이 제시된다.

제3막에서는 원봉이 영순, 정숙과 각각 해야 할 일, 나아갈 방향 등을 이야기하며 막이 내린다.

STEP 02. 유사 변형으로 문학 지문 뜯어 보기

차 혁 : 너 그런 말 말고 바로 좀 말해라. 청년회도 다 그만두겠다는 말은 정신 잃지 않고 하는 말이니? 아니 똑똑히 말 좀 해.

최원봉 : 바자에 회계 축난 오십여 원 돈이란 것은 내가 써버린 것이 사실이다. 놀랄 일이지? 현금과 출납부 사이에 축나는 것은 돈이 사실로 써 없어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부 기입이 잘못되었거나 하는 외에는 틀릴 까닭이 없지 않니? 그런데 장부 기입 말은 서무는 확실히 기입 착오가 없다고 하는데서야 어떻게 말할 여지가 있니. 내가 꼴에 맞지 않는 현금 출납을 맡았던 게 죄이지.

차 혁 : 허지만 사실대로만 발표하면 양해가 있을 것 아니니? 더구나 장부 기입하는 이와 현금 출납하는 이가 별다른 이가 되어 놓았으니까 그만한 과실이야 얼마든지 양해가 설 것 아니니, 그만한 것이야 총회에 불일 것도 물론 없고 간부회에서 의논할 일이지.

최원봉 : 그저 무사평온으로 지내자는 뜻으로 네 생각도 옳긴 하지만 지금 나로 앉아서는 싫다.

차 혁 : 왜 또 그건 무슨 주책이야?

최원봉 : (한참 있다가) 머리 숙이고 내가 잘못하였으니 용서해 주시오 하기는 싫다.

차 혁 : 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가) 너 어쩌다가 돈이 축이 났니?

최원봉 : 돈이 축나게 부주의한 것이 죄가 아니니? 그뿐이야 그뿐.

차 혁 : 축난 돈이란 대부로 이월해 놓으면 그만 아니겠니.

최원봉 : 무슨 명목으로?

차 혁 : 글썄.

최원봉 : 쓸 데 없는 궁리는 내지도 말아. 하여간 내가 좀 험하게 쓴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지금 와서 숫자상으로 오십여 원이나 될 것은 참 나도 놀랐다.

차혁 : 그래서 책임상으로 불신임안을 그대로 승인하겠다는 말이니! 남에게 머리 숙이기 싫다면서도.

최원봉 : 내 잘못에는 머리 숙여도 내 잘못을 피하려고 머리 숙이기는 싫다. 정정당당하게 총회석상에서 자백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다.

차 혁 : 애 듣기 싫다. 그것이 무슨 주의니 아무러한 장대하고 위대한 주의라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 뿐이야.『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하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일을 위해 또는 성공을 위해서는 굴종이나 치욕이나 심지어는 위선까지도 사양치 아니해야 한다. 알아듣니? 그래서 너는 내 얼굴에 똥칠을 해 가면서 회도 흐지부지 만들겠다는 말이니?

최원봉 : 똥칠 아니라 더한 칠이라도 나는 내 양심대로 칠을 하고 나설 수밖에

차 혁 : 왜 그따위로만 되어가니? 내말 좀 들어봐라. 겁때 불신임안이 통과 못된 것은 즉 네게 대한 사실상의 신임이라고 나는 믿는다. 왜 그런고 하니 설령 이번 바자에서 회계상의 축이 생긴 것이 과실이라고 해 놓고도 네게 대해서는 회를 위해 신임한다는 증거가 아니겠니? 정치에서 과실은 죄악이라는 금언을 사실로 부인해 버린 이 자리 이 처지가 아니니? 그래도 모르겠니? 그런데 너는 일시의 감정 사소한 생각으로 그만 소인이 돼버리려고 하니?

최원봉 : 소인 아니라 더 작은 난장이가 된다고 치용될 것은 없다. 나는 아무리 일을 위한다기로 내 과실을 숨기거나 남에게 부당한 사과를 하기는 싫다. 나는 내 과실을 사실대로 그들이 앞에 가서 자복할게다. 승리를 얻는 장군 이상으로 벽찬 자신을 갖고 사죄하겠다. 이것이 좀 넉넉한 짓이겠니. 그러나 나는 남에게 연민이라든지 동정을 얻으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다. 내가 내 결점을 알면 그 동시에 그것을 누구에게든 속 시원히 발표하고 호소 아니 하고는 못 견딘다.

차 혁 : 그것이 무슨 되지 못한 망나니 사상이냐. 그것도 나- 체식¹⁾이니?

최원봉 : 나도 그전에는 너와 뜻이 맞고 또 너와 같이 일해 나갔지만 이전 못하겠다. 너희들이 나의 재능과 손을 빌려고 내 과실을 용서해 준다는 그런 더러운 동정은 내겐 동보보다 더럽게 생각된다. 나는 내 뜻대로 일하려면 그전에 먼저 같이 일할 온 사회를 적진으로 몰아낸 뒤에 일이 되겠다.

차 혁 : (노한 소리로) 그래서 청년회도 그만두고 조소와 이간을 맞아 들어서 모주 뒤편벽을 만들겠다는 말이구나.

최원봉 : (또한 노한 목소리로) 왜 너희들은 나 아니면 상무간사 될 사람 없어 그러니? 그리 장언대어²⁾하는 네가 되어 일해 보려무나. 그러면 ①설마 나 같은 산돼지보다 나은 테지

차 혁 : (일어서며) 점점 타락해 오는구나. 잘 되어 간다. ②산돼지나 되었으면 잡아먹기나 하지만 너는 그것도 못되는 소인이야.

최원봉 : 소인? 너희들은 얼마나 위대한 대인이냐? 이 예고이즘에 철저한 놈들!(달려들 듯이) 일을 위해서는 위선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그것이 너희들 주의로구나?

치 혁 : 더 지껄이지 마라. 공연히 내 집도 아닌 네 집에서 싸워 그런 체면이 있겠니?

최원봉 : 흥, 너 싸워 볼테냐? 나 보고 목 베인 항우랬지?

차 혁 : 항우나 되면 그래도 박물관에나 갖고 가면 값이 된단다. 너는 산돼지야. 어금니밖에 못쓰는 산돼지.

치원봉 : (달려들며) 이 위선자! 왜 어금니한테 배워 보라.

최영순 : (쫓아 나오며) 오빠! 왜 이래요. 무슨 되지 못한 싸움들이예요? 이게 무슨 무식한 짓들이예요(혁에게)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오빠는 보통 시의 감정이 아니니까 보통 시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차 혁 : 네 생각에는 모두가 네 눈 아래로 보이는 게지? 너는 기실 못난 짐승이야.

최원봉 : 짐승? 산돼지라고 바로 대렴.

최영순 :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이 그런 소리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오빠는 지금 병인과 마찬가지로요. 참으세요.

최원봉 : (영순을 내갈기며) 너까지 나를 산돼지 대접을 하려 드니?

차 혁 : (영순을 막아 주며) 너 이건 또 무슨 못난 짓이냐. 애 그만두자. 내가 잘못했다. 네가 회를 그만 두든 말든 네 주의대로 해라.

최원봉 : (억지로 참고 마루 끝으로 나온다.) 모두가 되지 못한 같은 무리이니 무슨 소용이 있겠니?

차 혁 : (영순에게) 울지 마십시오. 일어나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나는 가겠습니다. 공연히 쓸데없는 짓을 해서 미안합니다.

최원봉 : 너 같은 것 다시 내 집에 왔다가는 경강이 분질러 놓겠다.

- 김우진, <산돼지>

[어휘 풀이] 1) 체식(體式) - 체재와 방식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장언대어(壯言大語) - 의기양양하게 큰소리치는 것.

01. 위 글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 ① 혁과 영순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 ② 원봉은 청년회를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 ③ 혁은 청년회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
- ④ 원봉은 바자회의 수익금을 유용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 ⑤ 원봉이 청년회에서 불신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3)

02. 화자의 심리가 ㉠과 유사한 것은?

- ① 괴로웠던 사나이, /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 처럼 /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 모가지를 드리우고 /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 윤동주, <십자가>

- ②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 / 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겠네.

-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 강>

- ③ 꺾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 비료값도 안나오는 농사 따위야 /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 신경림, <농무>

- ④ 나는 무한히 살고 싶어라. / 너랑 살아 보고 싶어라. / 사랑서 주검보다 그리운 것이 되고 싶어라. / 억만 광년(億萬光年)의 현암(玄暗)을 거쳐 / 나의 목숨 안에 와 닿는 / 한 개의 별빛.

- 신동집, <목숨>

- ⑤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랴 내맡긴 신세임을 /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을 차고>

44)

03. ㉔과 같이 말한 차혁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점차 물질에 집착해 가는 원봉의 모습을 꾸짖고자 한다.
- ② 상황에 무기력하게 대처하려는 원봉을 질책하고자 한다.
- ③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원봉을 위로하고자 한다.
- ④ 비뚤어진 역사 인식을 가진 원봉의 태도를 비판하고자 한다.
- ⑤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좌절하는 원봉에게 용기를 주고자 한다.

(45)

04. 위 글을 회곡으로 공연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대는 전반적으로 어둡고 갑갑한 느낌을 주는 작은 집으로 설치한다.
- ② 영순을 맡은 배우는 진심으로 두 사람을 걱정하는 모습이 느껴지도록 한다.
- ③ 혁을 맡은 배우는 대사를 처리할 때 믿음직함과 융통성이 드러나도록 한다.
- ④ 원봉을 연기하는 배우는 차분하고 냉정한 인상이 강하게 부각되도록 분장한다.
- ⑤ 배경 음악은 무거운 느낌을 주는 곡을 선정하되 대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46)

최원봉 : 흥, 나 같은 산돼지가 그런 소리밖에 더 지를라구요. 아니, 한마디 물어봅시다. 나 죽으면 영순이를 어떤 데로 시집보내시려우?

최 주사댁 : 잠들기 어렵니? 잠 오는 약 먹여 주랴?

최원봉 : 천만에, 걱정 마세요. 이것 봐요. 혁이는 산돼지도 못 되고 ㉔**집돼지**예요, 들돼지도 못 되고 그러니까 더욱 탈이지요. (웃으며) 그런데 어머니 대답 좀 하세요. 처음에는 그 집돼지를 미워해서 그리 떼어 버리려고 애쓰더니 요새 와서는 왜 또 그리 가까이하려고 애쓰시요? 내 어머니 속은 참 모르겠소. 영순이가 내 병 봐주느라 항상 내 옆에 붙어 있으니까 집안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시요? 아 대답 좀 해 보세요.

(중략)

최 주사댁 : 너는 요새 와서 왜 그리 혁이를 미워하니? 그래도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더니, 너부터 말 좀 해 봐라.

최원봉 : 어머니는 부끄러워 먼저 말 못 해주시겠다고요? 그러면 내가 말하리까?

최 주사댁 : 해 봐라.

최원봉 : 뻔한 일 아니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보석이 이제야 값이 비싼 귀중한 것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내던져 준다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운 진주 같은 보석을 돼지 발밑에다 내던지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더구나 그 위선자인 돼지가 내 진주를 빼앗아 가려고 하니 내 속이 얼마나 상하게요. 아무리 돼지 앞에 내던져 준다 해도 하필 그 더러운 집돼지에다! 더구나 그 진주는 내가 모르기 전부터 내 것으로 말아 두었던 것을!

최 주사댁 : (원봉이의 말을 못 들은 듯이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다가) 그게 모두 무슨 뜻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들겠다.

최원봉 : 못 알아들으세요? 어머니가 곡절¹⁾을 이야기 안 해 주시니까 내가 더 말씀해 드릴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옛날 옛적에 상놈이 있는데 죽을 때 친구되는 양반에게 삽살개 한 마리를 선사로 주었더라요. 이 양반님은 그걸 받아 가지고 어찌 귀여운지 보물과 음식을 넣어 둔 곳간 옆에다가 매 두고 도적놈을 지키라고 했더라요. 그런데 그 놈의 삽살개는 도적 지킬 줄을 알아야지요. 도리어 도적놈한테 몽둥이만 얻어맞고 한마디 짖지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중략) 그런데 그 개가 그때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지키고 있는 곳간 안에는 별별 보화와 산해진미²⁾가 들어 있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은 문을 뜯어 열어젖히고 들어가서 한번에 모두 내 것을 만들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도적놈이 나서서 방해를 치지 않겠소. 그 양반 주인이 이걸 보고서는 어찌 분이 났는지 곳간 문을 죄다 열어젖히고 그 안에 든 것을 도적놈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김우진, <산돼지>

[1] 자신의 출생을 비밀을 개 이야기에 빚대어 말하는 최원봉

[어휘 풀이] 1) 곡절 - 복잡한 사연이나 내용. 2) 산해진미 - 산과 바다의 온갖 산물로 차린 음식.

05. '최원봉'의 말하기 방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을 활용하여 모순된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상황을 과장하여 위기감을 강하게 조성하고 있다.
- ③ 해학적인 표현을 통해 풍자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④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우회적으로 진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감춰진 속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47)

06. ㉠과 ㉡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 모두에 소중히 여긴 것의 가치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이 담겨 있다.
- ② ㉠에서의 진주와 ㉡에서의 보물은 최원봉의 입장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 ③ ㉠에서의 집돼지와 ㉡에서의 도적놈은 최원봉과 대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에서의 위선자와 ㉡에서의 양반 주인은 최원봉의 입장에서 최 주사댁을 염두에 둔 말이다.
- ⑤ ㉠에서의 최원봉과 유사한 입장에 있는 대상은 삽살개이다.

48)

07. ㉢의 상징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
- ② 정해진 환경 속에서 무기력하고 답답하게 지내는 존재
- ③ 자신의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존재
- ④ 주변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사교적인 존재
- ⑤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진취적인 존재

49)

최원봉 : (한참 있다가 누운 대로 상반신을 들어 주사댁 얼굴을 쳐다보면서) 어머니, 거짓말도 그만하고 눈치 따먹기도 그만하기로 합시다. 모자간에 서로 숨기고 있으면 그런 서먹서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최 주사댁 : 숨기기는 무엇을 숨겨?

최원봉 : 영순이와 내가 정말 친남매간입니까?

최 주사댁 : (㉠) 아이구, 너 미쳐 가는구나!

차혁 : (밖의 마당에서) 계십니까? 영순 씨 계세요?

최 주사댁 : 차 선생님이세요? 이리로 들어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최원봉 : (돌아누우며) 미친놈 누워 있는 방으로 데리고 오지 말아요.

최 주사댁 : 너 왜그러니?

최원봉 : 나 그 자식 얼굴 보기 싫어요. 이리로 들어왔다가는 산돼지 어금니 맛 보여 줄 테니까 그리 야슈.

[1] 차혁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최원봉

(중략)

노래가 이어지는 동안 원봉이는 잠들고 ㉡무대는 어두워진다. 그리고 몽롱한 달빛같은 창백색이 나타난다. 그러나 다만 여름철 그믐달 밤의 하늘과 같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노래는 다시 누구의 소린지 바스¹⁾와 합창이 되어 가지고 되풀이해 나가는 동안 무대에는 무한한 공간만 채워 있는 것 같다.

몇 번 노래가 되풀이해 가다가 제일 절이 끝나기 전부터 창백색이 좀 밝아온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은 병실 대신에 동한 중의 별판이 나타난다. 환경사의 야산이 나지막해져 온 곳 중복²⁾에 무대가 놓인 셈이다. 왼편으로 숲, 잡목, 오른편으로 언덕, 여기저기 석총³⁾. 회색 겨울 하늘이 낮게 걸려 있어서 전경을 금시라도 와 누를 것 같다. 지상과 언덕 위에는 약간 흰 눈이 덮여 있고 시시로 회오리바람과 눈 싸라기.

이하의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 갑자년 동학당 전군 행렬의 팬터마임⁴⁾이 지나간다. ‘오만 년 수운대의(五萬年受運大義)’ 글자를 쓴 오색의 기치를 선두로 도중(道衆)⁵⁾의 어깨에는 ‘궁기(弓己)’, 등에는 ‘동심의맹(同心義盟)⁶⁾’이라 박은 삼삼오오의 일대(一隊). 환희와 서계와 격려와 혹은 혼란을 표시하는 팬터마임. 천천히 그러나 무거운 수천 리 걸어온 피로된 보조로 지나간다. 무대 한참 동안 공허.

(중략)

원봉이네 : (비틀비틀하며) 제발 살려 주시오.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더 못 나가겠습니다. (목메인 소리로) 제발 적선 좀 해 주시오. 저는 동학 역적 놈을 남편으로 둔 죄로 이 자리에서 참형을 당해도 원통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뱃속에 든 어린 아기를 위해서 살려 주세요. 이 뱃속 아기가 불쌍하지 않나요?

병정 : (따귀를 붙이며) 웬 잔소리야, 잔소리가! 그따위 소리는 관찰사님 앞에 가서 네 멧대로 지껄이라니까. 썩 걸어. 걸지 않겠니?

원봉이네 : (두 손으로 합장하며) 이 아기를 위해, 이 뱃속에 든 어린 아기를 위해 제발 살려 주세요. 이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병정 : 예잇, 귀찮아! 그러니까 누가 네 새끼를 찢러 죽인다니? 관가로 가기만 가잔 말이야.

원봉이네 : 더 걸어가다가는 정말 둘이 다 죽겠습니다. 한 발자국도 떼어 놓지 못 하겠어요. 만삭된 이 무거운 몸을 해 가지고 삼십 리나 걸어왔으니 아무리 몸이 튼튼한 년이라도 당할 수가 있습니까?

- 김우진, <산돼지>

[2] 동학당의 아내로서 고통받으면서도 모성애를 드러내는 원봉이네(최원봉의 꿈속 장면)

[어휘 풀이] 1) 바스 - 베이스. 성악에서 남성의 가장 낮은 음역. 또는 그 음역의 가수. 2) 중복 - 산의 중턱. 3) 석총 - 돌을 쌓아 올려 만든 무덤. 4) 팬터마임 - 무연극. 말은 하지 않고 몸짓과 얼굴의 표정만으로 표현하는 연극. 5) 도중 - 길을 가는 무리. 6) 동심의맹 - 동학군이 외치던 상징적인 구호.

08.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제 강점기의 빈궁한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일제에 대한 저항적 · 비판적 의도가 드러난다.
- ② 신파극만 존재했던 1920년대의 전위적인 실험극으로서, 현대극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 ③ 일제 강점기의 지식인이 갖고 있던 개혁 의지와 좌절을 사실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 ④ 새로운 세대들의 활기찬 모습을 통해, 발전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의 표현주의 기법을 도입한 희곡으로,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0)

09. 이 글의 연출자가 지시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향 담당은 합창을 되풀이해서 들려주세요.
- ② 다양한 동학군의 깃발을 소품으로 준비해 주세요.
- ③ 팬터마임의 동작이 일치되도록 담당 배우들은 연습을 많이 해 주세요.
- ④ 조명은 몽환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⑤ 무대는 병실에서 겨울 별판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이동되도록 설치해 주세요.

51)

10. ‘원봉이네’가 ‘병정’에게 보이는 태도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 ① 전전긍긍(戰戰兢兢)
- ② 안하무인(眼下無人)
- ③ 애걸복걸(哀乞伏乞)
- ④ 적반하장(賊反荷杖)
- ⑤ 고육지책(苦肉之策)

52)

11. ㉠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떨리는 소리로
- ② 확신을 가지고
- ③ 미안한 표정으로
- ④ 안쓰럽다는 듯이
- ⑤ 농담이라는 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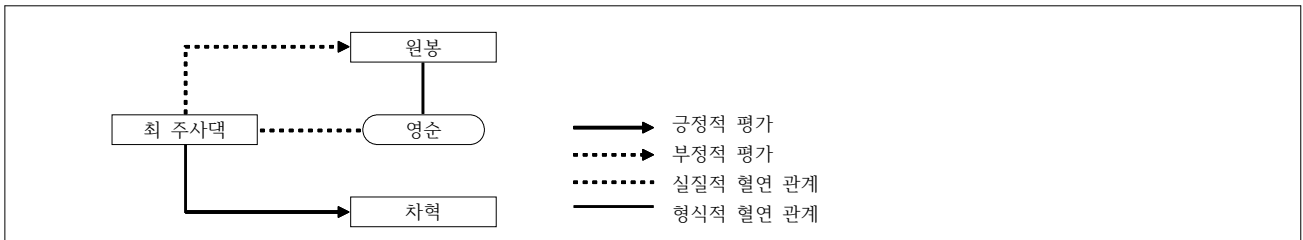
53)

1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봉의 어두운 내면세계를 암시한다.
- ②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됨을 암시한다.
- ③ 당시의 어두운 시대적 상황을 암시한다.
- ④ 시간의 흐름이 현재에서 미래로 바뀔 것을 암시한다.
- ⑤ 공간적 배경이 원봉의 꿈속으로 바뀔 것을 암시한다.

54)

13. <보기>는 위 글의 인물 간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분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원봉'은 '차혁'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원봉'과 '최 주사댁'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 ③ '영순'은 '원봉'과 '최 주사댁' 사이의 갈등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 ④ '최 주사댁'은 차혁이 '영순'의 배우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⑤ '최 주사댁'은 '원봉'을 추궁하고 있고, '원봉'은 '최 주사댁'의 추궁을 회피하고 있다.

55)

수능특강 문학

개념학습 06 -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나'가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깨달은 것

꿀짜기에 가득한 소나무들을 보며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생산해 내는 것에 충격을 받음.
경복궁 복원 공사 현장을 생각하며	경복궁 복원을 위해 수많은 소나무를 베어 내려는 것에서 경제학의 폭력성을 깨달음.
산판일 하는 사람들의 불문율에 관해 생각하며	소나무가 생명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삶과 정서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깨달음.
남산 소나무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솔방울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져 버리고, 다른 경쟁수들과의 무한 경쟁에 내몰린 상황에 안타까워함.

➤ [분석 후 <해제>와 <구성>을 참고하여 해석해 보기]

{해제}

이 작품은 태백산맥의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깨달은 점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한 수필이다. 글쓴이는 소나무들을 보며 경이를 느낌과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이루어 내지 못하는 자신을 반성한다. 나아가 현대인들의 무차별적인 소비와 현대 사회에 만연한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를 비판하고, 현대 문명의 폭력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제시한다.

{주제}

무차별적인 소비를 일삼는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 현대 사회의 비정한 세태 비판

{구성}

- 1문단: 풍상을 겪으며 버티어 온 소나무에 대한 경이와 자신에 대한 반성
- 2문단: 소나무를 비롯한 자연을 훼손하는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
- 3문단: 인간마저 소비의 객체로 전락시키는 현대 사회의 폭력적인 소비 행태 비판
- 4문단: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 대조되는 소나무의 정신적 기상
- 5문단: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만연한 현대 사회의 모습 비판
- 6문단: 솔방울의 끈질긴 생명력에 대한 예찬, 현대 문명의 폭력성에 대응하는 저력이 필요함을 제시

STEP 02. 유사 변형으로 문학 지문 뜯어 보기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 준 태백산맥 속의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200년, 300년, 더러는 500년의 풍상¹⁾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티어 온 것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²⁾입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는 달리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경이였습니다.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소광리의 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았습니다.

[1]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느낀 점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 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지요.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경복궁 복원³⁾ 공사 현장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한 조선 정궁의 기본 궁제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광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경복궁의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⁴⁾으로 200만 개,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룰테면 고난에 찬 몇 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 경복궁 복원에 동원되는 소나무에 대한 안타까움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 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 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 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이 이 소광리에서만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달리 없을 듯합니다.

- 신영복,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3] 소비의 주체인 인간의 폭력성 비판

[어휘 풀이]

1) 풍상 - 세상의 모진 고난과 고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경이 - 놀라울 만큼 신기하고 진기한. 3) 복원 - 원래대로 회복함. 4) 원목 - 베어낸 그대로 아직 가공하지 아니한 나무.

0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나무를 사람에 비유하고 있다.
- ② 소나무를 통해 삶의 교훈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소나무에 대한 객관적 묘사에 충실하고 있다.
- ④ 소나무에 대한 친화적인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조를 통해서 소나무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56)

02. ㉠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소나무는 인간보다 훨씬 많은 것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 ② 소나무는 오랜 세월 풍상을 곳곳이 극복해 왔기 때문이다.
- ③ 소나무는 인간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 ④ 소나무는 조선 정궁 복원에 꼭 필요한 재목이기 때문이다.
- ⑤ 소나무는 자신에게 주어진 좁은 자리에 만족할 줄 알기 때문이다.

57)

03. ㉔의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바다를 매립하여 농지로 바꾸려는 개발 위주의 정책
- ② 필요에 의해서 가볍고 일회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현상
- ③ 육식 위주의 식습관이 가져오는 환경 파괴와 기아 현상
- ④ 고가의 사치품을 소유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려는 세태
- ⑤ 여성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

58)

04. 이 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생각이 아닌 것은?

- ① 인간은 자연을 생산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
- ② 현대인들은 자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줄 모른다.
- ③ 순수하게 인간이 생산해 내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다.
- ④ 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인간의 가치관은 바뀌어야 한다.
- ⑤ 새 것을 건설하기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9)

산판일¹⁾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 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²⁾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어찌 노하는 것이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온 산천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어 온 혈육 같은 나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³⁾에 술가지를 꽂아 부정을 물리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 속에 누워 술발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의 한을 달래 주는 것이 바로 은은한 술바람입니다. 술바람뿐만이 아니라 솔빛 · 솔향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정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소나무는 ㉑고절(高節)⁴⁾의 상징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금강송의 곧은 동치에서뿐만 아니라 암석지의 굽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는 곧은 지조를 읽어 낼 줄 압니다.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우리는 일찍부터 가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1]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 대비되는 소나무의 상징적 의미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㉒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 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섬에 갇혀 목말라 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술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그 술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 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활엽수의 침습⁵⁾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가꾸어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 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술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하였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술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술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술방울들의 끈질긴 저력⁶⁾을 신뢰해야 합니다.

언젠가 붓글씨로 써 드렸던 글귀를 엮서 끝에 적습니다.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㉓우리들이 자루가 되어 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 신영복,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어휘 풀이] 1) 산판일 - 산판에서 나무를 베는 따위의 일. 2) 불문율 -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법. 관습법이나 판례법 등. 3) 금줄 - 부정한 것의 침범이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문이나 길 어귀에 건너질러 매거나 신성한 대상물에 매는 새끼줄. 4) 고절 - 높은 절개. 5) 침습 - 나쁜 풍습, 유행, 사상, 전염병 따위가 침범하여 들어옴. 6) 저력 - 속에 간직하고 있는 든든한 힘.

05. 밑줄 친 시어가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몸이 주거 가서 무어시 될고 하니 / 봉래산(蓬萊山) 제일봉(第一峰)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야 이셔 / 백설(白雪)이 만건곤(滿乾坤)할 제 독야청청(獨也靑靑) 하니라. - 성삼문
- ② 더우면 곳 피고 치우면 님 디거늘, / 술아 너논 얻디 눈서리를 모락논다 / 구천(九泉)의 불휘 고든 줄을 글로 하야 아노라 - 윤선도
- ③ 간밤의 부던 바람에 눈서리 치단말가 / 낙락장송이 다 가우러 가노미라. / 하물며 못다 핀 곳치야 일너 무엇하니오. - 유응부
- ④ 바람에 휘엇노라 굵은 술 옷지 마라 / 춘풍에 핀 꽃이 매양 고우라 / 바람 세차게 불고 눈 흘날릴 때면 너야 나를 부러워하리라. - 인평대군
- ⑤ 절집은 흰구름 가운데 있고 / 스님네는 흰구름을 쓸지 않네 / 손님 와야 비로소 문이 열리니 / 골짜마다 술꽃가루 자욱하구나. - 이달

60)

06.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 ①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
- ② 작고 척박한 환경에 만족하는 사람
- ③ 황폐한 사회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
- ④ 체념하지 않고 희망을 간직한 사람
- ⑤ 오랜 시련을 곳곳이 극복해 낸 사람

61)

07. 다음은 ‘술방울’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와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당신’	‘나’
황폐해진 땅에서 살아남기를 포기한 소나무의 (㉢)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을 소생하게 한 (㉣)

62)

08. ㉢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우리가 울분을 잊지 않는 한
- ② 우리가 죄를 증오하지 않는 한
- ③ 우리가 스스로 굴복하지 않는 한
- ④ 우리가 목표 의식을 잃지 않는 한
- ⑤ 우리가 성장을 위한 고통을 참는 한

63)

수능특강 문학

개념학습 07 - 눈물

더러는

옥토(沃土)¹⁾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흙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제,

나의 가장 나아종²⁾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 김현승, <눈물>

▶ [분석 후 <해제>와 <구성>을 참고하여 해석해 보기]

{해제}

이 작품은 아들을 잃은 시인이 자신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자 쓴 시로,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눈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연에서는 작은 생명이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면서, 2~4연에서는 '눈물'을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값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5~6연에서는 '열매'에 빗대어 '눈물'이 영원하고 본질적인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시인은 '눈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주어진 슬픔을 받아들이고, 순결한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

{주제}

순결하고 순수한 삶의 추구

{구성}

- 1연: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하는 소망
- 2연: 절대적으로 순수한 존재로서의 눈물
- 3~4연: 가장 값지고 고귀한 존재로서의 눈물
- 5~6연: 영원하고 본질적인 존재로서의 눈물

{특징}

- ① 독백체의 자기 고백
- ② 단정적이면서도 경어체를 사용한 경건한 어조
- ③ 상징적 시어와 선명한 이미지 사용
- ④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함.



STEP 01. 오늘의 국어 : 개념 체크 O, X 퀴즈

1. 글쓰이의 경험이 시에 반영되어 있다. (O , X)
2. 글쓰이는 눈물의 일반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새롭게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O , X)
3. 눈물의 의미를 '작은 생명' 이라고 표현한 까닭을 쓰시오.
4. 이 시에서 웃음은 삶의 기쁨, 결실, 궁극적인 것을 의미한다. (O , X)
5. 이 시에서 꽃에 대조 적인 의미를 지니는 시어는 열매이다. (O , X)
6. 화자는 종교적 믿음을 통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O , X)
7. 눈물을 형상화한 표현을 생각나는 대로 쓰시오.

• 엮어 읽기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치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寶石)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아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1>

➡ <눈물>과 <유리창1>은 자식의 죽음이 시적 동기라는 점과 부성애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눈물>은 신적 존재에 기대어 자식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유리창1>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STEP 02. 유사 변형으로 문학 지문 뜯어 보기

더러는

옥토(沃土)¹⁾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흙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제,

나의 가장 나아중²⁾ 지닌 것도 오직 이뿐!

[A]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 김현승, 〈눈물〉

[어휘 풀이] 1) 옥토(沃土) - 기름진 땅. 2) 나아중 - '나중'의 시적 허용.

01. 이 시에 나타난 '눈물'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순수하고 가장 깨끗한 존재
- ② 소유의 결핍에서 오는 삶의 비애
- ③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존재
- ④ 시련을 거쳐 도달한 궁극적인 목적
- 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가치

64)

02.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종교적 발상을 사상 전개의 기초로 삼고 있다.
- ②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③ 단정적 어조를 통하여 화자의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특별한 미적 효과를 위해 문법에 어긋나는 어휘를 쓰고 있다.
- ⑤ 소망과 기원의 목소리로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표현하고 있다.

65)

03. [A]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의미 구조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꽃 : 열매 = 웃음 : 눈물
㉠ ㉡

- ① ‘열매’와 ‘눈물’은 모두 신의 섭리에 의한 결과물이다.
- ② ㉠은 ‘아름다운 나무’에 대응되고, ㉡은 ‘나’에 대응된다.
- ③ ‘꽃’이 ‘열매’의 근원이 되듯, ‘웃음’은 ‘눈물’의 근원이 된다.
- ④ ‘꽃’은 한순간의 아름다움을, ‘웃음’은 일시적인 기쁨을 의미한다.
- ⑤ ‘꽃’과 ‘열매’, ‘웃음’과 ‘눈물’은 각각 의미의 대립 관계를 형성한다.

66)

더러는

㉠옥토(沃土)¹⁾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生命)이고저……

[1]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소망

흙도 티도,

㉢금 가지 않은

㉣나의 전체(全體)는 오직 ㉤이뿐!

[2] 눈물의 순수성과 절대적 가치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제,

나의 가장 나아쥬 ㉥지니인 것도 오직 이뿐!

[3~4] 눈물의 절대적 가치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5~6] 신의 섭리와 눈물의 진정한 의미

- 김현승, <눈물>

[어휘 풀이]

1) 옥토 -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풍부한 좋은 땅.

04.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명상적, 상징적인 성격의 시이다.
- ② 시적 화자는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 ③ 경어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건함을 보여준다.
- ④ ‘눈물’의 내면적 의미를 밝힌 후 그 속성을 말하고 있다.
- ⑤ 대조적 의미를 가진 시어를 활용해 ‘눈물’의 의미를 보여 준다.

67)

05. 이 시를 읽고 시적 화자의 의도를 바르게 해석한 사람은?

- ① 주연 : 지금 당장을 열심히 살지 않으면 미래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어.
- ② 규민 : 이 힘든 순간도 언젠가는 지나갈 테니 다 잊고 미래만 보고 살아가자.
- ③ 권규 :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들도 다 의미가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 같아.
- ④ 나영 : 세상을 살아가는 절대적 가치는 사랑인 것 같아. 진실한 사랑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핵심이야.
- ⑤ 규리 : 슬픔을 이기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많은 사람들 속에 자신을 던지면 그 사람들로 인해 슬픔은 자연스레 잊혀지기 마련이지.

68)

06. 이 시의 밑줄 친 ㉠~㉣의 함축적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 신의 은총이 있는 곳
- ② ㉡ : 순수하고 순결한
- ③ ㉢ : 내 영혼의 가장 순결한 부분
- ④ ㉣ : 본질적이고 영원한 삶의 기쁨
- ⑤ ㉤ : 시적 화자가 의지하는 절대자

69)

07. 이 시의 밑줄 친 ㉠~㉣ 중,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70)

더러는

옥토(沃土)¹⁾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1]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소망

흙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2] 절대 순결로서의 눈물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제,

㉡나의 가장 나아중²⁾ 지닌 것도 오직 이뿐!

[3~4] 절대적 가치로서의 눈물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5~6] 신의 섭리와 은총으로서의 눈물

[어휘 풀이] 1) 옥토 :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풍부한 좋은 땅. 2) 나아중 : 나중. 마지막. 시적 허용이다.

08. 이 시와 다음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치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나는 산(山)새처럼 날아 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 1>

- ① 이 시와 <보기> 모두 자식의 죽음이 시를 쓰게 된 동기이다.
- ② <보기>와 달리 이 시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경건하게 말하고 있다.
- ③ 이 시와 달리 <보기>에서는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이 시와 <보기>모두 시적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고 있다.
- ⑤ 이 시와 <보기> 모두 화자가 슬픔을 새로운 삶의 결실을 위한 토대라고 여기고 있다.

71)

0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눈물'이며, 이를 통해 눈물의 절대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은 '꽃', ㉡은 '열매'이며, 이를 통해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눈물', ㉡은 '웃음'이며,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④ ㉠과 ㉡은 모두 '웃음'이며, 이를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웃음을 갖게 된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웃음', ㉡은 '눈물'이며, 이를 통해 웃음보다 눈물이 더 가치 있는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72)

10.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 ② 삶의 행복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
- ③ 그동안 이기적으로 살아 왔던 나의 삶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
- ④ 웃음과 눈물이 사실은 동일한 존재의 양면임을 알게 하기 위해
- ⑤ 눈물을 통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성숙한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73)

*** 추가 문제 - 2020 수능특강 [지문 엿보기]**

(가) 1인칭 서술의 소설에서는 이야기 내부에 '나'로 불리는 인물이 있으며, 이야기를 독자에게 중개해 주는 서술자도 '나'라고 지칭된다. 그러나 두 개의 '나' 중에서 이야기 내부에서 체험하는 '나'와 이야기 외부에서 서술하는 '나'는 시·공간적으로 다른 곳에 위치한다. 즉 서술자로서의 '나'는 인물로서의 '나'가 과거에 경험한 사건들을 서술하는 셈이다. 여기서 앞의 서술하는 '나'를 '서술 자아'라고 부르고, 뒤의 체험하는 '나'를 '경험 자아'라고 부른다.

1인칭 서술의 소설 중에는 서술 자아 자신이 마치 경험 자아처럼 극화되는 소설도 있다. 예컨대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나 채만식의 [치욕]에서는 서술 자아가 경험 자아처럼 인물화된 말투를 구사한다. 이들 작품에서 서술 자아의 언어는 인용 부호 안의 인물의 어법과 동일하여 전체를 인용 부호로 묶어도 될 정도로 극화되어 있다. 이럴 경우 서술 자아와 '내포 작가'가 분리될 가능성은 매우 커진다. 일반적인 소설에서 어떤 인물의 발화를 인용 부호로 인용할 때 인용하는 존재가 필요하듯이, 전체를 인용 부호로 묶을 수 있는 서술 자아의 말은 그것을 객관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인용자를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예로 든 작품들 속 서술 자아의 말은 매우 주관적이므로 소설적 객관화를 위해서는 서술 자아를 객관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존재자, 즉 내포 작가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서술 자아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인용 부호를 치는 존재자가 바로 내포 작가이다. 이처럼 경험 자아와 동일한 정도로 극화된 서술 자아는 암암리에 내포 작가를 전제로 한다. 특히 앞에 예로 든 작품들처럼 극화된 서술 자아가 신뢰성이 없을 경우에는 내포 작가와 서술 자아의 분리는 명백해진다.

한편, 1인칭 서술은 고백의 형식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서술자 '나'의 내밀한 심리가 직접적으로 고백되는 경우, 독자들은 서술자의 내면에 쉽게 감정 이입이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나) 전화 바꿨습니다. 어떤 일이세요? 형님이 전화를 다 주시구. 거는 건 언제나 제 쪽에서였잖아요. ㉠말도 저만 하고 형님은 듣기만 하셨죠.

(중략)

제삿날 말고 또 안 중요해진 게 뭐가 있느냐고요? 많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과연 형님이 이 해하실 수 있으실라나 몰라. 형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삿날처럼 그렇게 꼭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전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했는데 이젠 내가 보고 느끼는 내가 더 중요해요. ㉡남을 위해서 나를 속이기가 싫어요. 무엇보다도 피곤하니까요. 가장 쓰잘 데 없는 걸로 진 뺑이 싫어요. ㉢또 있구 말구요. 그전엔 장만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젠 버리는 게 더 중요해요. 형님보담은 좀 덜했지만 저도 물건 욕심이 꽤 있었잖아요. 누구네 집에 가서 예쁜 접시나 찻잔만 봐도 어디 제인 가 물어보고, 역시 다르다고 감탄하고, 눈독 들인 건 기어코 장만하고, 그게 사는 재미였죠. 욕심 년대던 가, 형님이나 저나 아직 새댁 티가 남아 있을 적 말예요. 그때는 모든 물자가 귀할 때이기도 했지만 우리 사재기 선수였잖아요? 화학숨이 처음 나왔을 땐데 그까짓 화학숨 이불이 뭐가 그렇게 신기했는지 이불 계를 모아서 두 집이 한 채씩 그걸 장만했었죠. 그리고 보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자개장롱도 겻돈 타서 장만한 거네요. 갖고 싶은 걸 애써 장만하고 나면 그리 기쁘더니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짐스러워요. 왜 그게 거기 있을까, 몇십 년 손때 묻은 것들이 뜨악하고 낯설어지기도 하죠. 잠 안 오는 밤이면 주로 하는 짓이 뭘 줄 아세요? 장롱이나 찬장 속을 들들들 뒤져서 버릴 것을 찾는 거예요. 버릴 것 천지지요. 뭐. 남들은 쓰자니 마땅찮고 버리자니 아까운 거 천지라고 하더니만 전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딸들 눈이 무서워서 한꺼번에 못 버릴 뿐이지요. 또 장롱 같은 거야 무슨 수로 버리겠어요. 누굴 주든지 고물상을 부르든지 해야 할 텐데, 그것도 번거롭고 고물상이나 남의 집에 그게 있다는 것도 신경 쓰일 것 같아요. 그게 혹시 손때가 묻은 것들에 대한 책임감이라면 그것도 소유욕의 일종인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세상에 귀한 거라곤 없으면서 버리기도 쉽지 않은 건, 내 눈앞에서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없어지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가끔 아궁이가 있는 집이라면 꽤 땀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 보죠. 그것도 생각뿐이지 요즈음 물건들은 그렇게 쉽게 재도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생때같은 목숨도 하루 아침에 간데없는 세상에 물건들의 목숨은 왜 그렇게 질긴지, 물건들이 미운 건 아마 그 질김 때문일 거예요. 생각만 해도 타지도 썩지도 않을 물건들한테 치여 죽을 것처럼 숨이 답답해지네요. 죽는 건 하나 도 안 무서운데 죽을 것 같은 느낌은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 열흘 전쯤 친한 동창 명애가 찾아와 '나'는 갑자기 어느 동창의 아들 병문안을 같이 가게 되었다. 사고로 하반신 마비였다 치매까지 걸린 아들을 힘겹게 병구완하는 동창의 모습과 자기 어머니 외에 다른 이의 손길에 대해 괴성을 지르며 거부하는 그의 아들 모습을 보고서 '나'는 크게 운다. '나'는 시위 현장에서 쇠 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외아들이 있었다.

[A] 전 그 울음을 통해 기를 쓰고 꾸민 자신으로부터 비로소 놓여난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요 며칠 동안은 울고 싶을 때 우는 낙으로 살고 있죠. 그러느라고 증조모님 제삿날도 깜박 했을 거예요. 은하계도 떠내려가는 판에 한 번 뵈지도 못한 **시댁 조상 제삿날**이 남아났겠어요. 이제부터 울고 싶을 때 울면서 살 거예요. 떠내려갈 거 있으면 다 떠내려가라죠.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꾸미는** 짓도 안 할 거구요. **생때같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서 소멸했어요. 그 바람에 전 줄지에 장한 어머니가 됐구요. 그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수가 있답니까. 어찌 그리 **독한 세상**이 다 있었을까요, 네, 형님? 그나저나 그 독한 세상을 우리가 다 살아 내거나 한 걸 까요? 혹시 그놈의 것의 꼬리라도 어디 한 토막 남아 숨어 있으면 어쩌나 의심해 본 적, 형님은 없죠? 형님, 뭐라고 말씀 좀 해 보세요. 아니 형님, 지금 울고 계신 거 아냐? 형님, 절뚝거리는 어찌 살라고 세상에, 형님이 우신대요? 형님은 어디까지나 절벽 같아야 해요. 형님은 언제나 저에게 **통곡의 벽**이었으니까요. 울음을 참고 살 때도 통곡의 벽은 있어야만 했어요. 통곡의 벽이 우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대요.

- 박완서,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01. (다)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그동안 '형님'과 '나'의 소통이 정상적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소통의 불균형은 '형님'의 오해로 인한 것임을 짐작하게 해 준다.
- ② ㉡는 '나'의 유익보다는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나'의 심리를 담고 있다.
- ③ ㉢는 물음에 대한 답변의 형식을 빌려, 자신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 주려는 '나'의 의도를 담고 있다.
- ④ ㉣는 과거의 물건들이 지금 와서는 기능을 상실하여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나'의 판단을 담고 있다.
- ⑤ ㉤는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대 문명의 발전 속도에 대한 '나'의 비판적 태도를 담고 있다.

02. [A]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방감'은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애써 억누르며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난 느낌을 표현한 것이군.
- ② '시댁 조상 제삿날'은 더 이상 '나'에게 자기 자신보다 중요한 일로 간주되지 않는 일이 되었군.
- ③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꾸미는 짓'은 타인에게 짐짓 의연한 태도를 지닌 인물로 비치기 위해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군.
- ④ '독한 세상'은 '생때같은 아들'을 앗아간 당대의 폭력적인 현실로서 '나'에게 원망의 대상 이 되고 있군.
- ⑤ '통곡의 벽'은 마음껏 울고 싶은 '나'를 가로막는 존재로서, 심정적인 의지의 대상에 대한 '나'의 실망감을 암시하는군.

[해설]

(가) 소설의 서술적 특성

[해제]

이 글은 서사 갈래인 소설의 서술적 특성을 설명하는 글이다. 특히 1인칭 서술이 보이는 서술상의 특징과 그 미학적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즉 1인칭 서술은 이야기 속 작중 인물인 '나'에 의해서술되며, 서술하는 '나'(서술 자아)와 이야기 속에서 사건을 경험하는 '나'(경험 자아)로 구별된다. 또한 1인칭 서술 에는 서술 자아가 극화되어 인물의 어법을 구사할 경우에는 내포 작가와 분리되며, 그의 서술에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1인칭 서술에서 서술자가 자신의 내밀한 심리를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경우에 독자는 서술자의 내면에 쉽게 감정 이입이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소설에서 1인칭 서술의 특징과 내포 작가의 개념

[구성]

- 1문단: 1인칭 서술의 소설에서 서술 자아와 경험 자아
- 2문단: 극화된 서술 자아를 통해서 인지되는 내포 작가의 개념
- 3문단: 고백의 형식과 감정 이입의 효과

(나) 박완서,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해제]

이 작품은 소중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자신의 마음속 깊이 감추어 둔 슬픔을 어떤 사건을 계기로 표출하면서 마침내는 솔직한 눈물과 울음을 통해 치유하는 과정을 그린 단편 소설이다. 이 작품은 동서 간의 전화 통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상대방인 손위 동서(형님)의 발화는 생략된 채 '나'의 발화만으로 서술되고 있어 마치 모노드라마처럼 느껴진다. 이 소설은 '나'가 지금껏 추구해 왔던 중산층의 가치가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밝힌다. 즉 예전에 중요한 것이 지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자신의 고통을 무력화시키려는 갖은 노력이 소용없었음도 말한다. 그런데 하반신 마비에다 치매까지 걸린 아들을 간병하는 동창을 보며, 비록 식물인간 일망정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실체를 부러워하는 대목에 이르러서 비로소 '나'는 자신이 지금까지 가장해 왔던 허위를 벗어난다.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고 민주 투사가 된 장한 어머니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길 수 없는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기를 쓰고 위장한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이 세상의 야박함에 대해서도 작가는 비판하고 있다.

[주제]

근원적인 상처에 대한 눈물과 울음을 통한 공감과 치유

[전체 줄거리]

1980년대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대학생 아들이 죽자 '나'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 어느 날 조상의 제삿날을 확인하는 손위 동서의 전화를 받고 통화하면서 아들에게 걸었던 자신의 기대와 죽은 아들을 잊기 위해 몸부림치는 현실을 주절주절 늘어놓는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에서 헤어날 수 없는 '나'를 위해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어느 동창 친구를 방문하자고 이끈다. 그 동창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데다 치매까지 겪는 아들과 살고 있다. 동창은 위로차 방문 온 친구들 앞에서 아들에게 악담을 하면서 힘겹게 환자 뒷바라지를 한다. 그런데 환자를 도우려고 '나'가 손을 내밀자 환자 아들은 괴성을 지르며 거부한다. 그러자 동창은 '이 웬수 덩어리가 또 효도하네.'라며 '나'가 손을 대지 못하게 한다. 악만 남은 동창의 씩씩하고도 자애로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동안 참아 왔던 눈물을 쏟는다.

[정답/모범답안]

3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앞에서 손위 동서의 '제삿날 말고 또 안 중요해진 게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남의 시선이라고 대답했고, 또 이어서 '또 있구 말구요.'와 같이 말했으므로 그 앞에는 "그럼, 그것 말고 또 자네에게 안 중요해진 게 뭐가 있나?"와 같은 질문이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㉔는 물음에 대한 답변의 형식을 통해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손위 동서에게 알려 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는 그동안의 전화 통화에서 '나'가 주로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 손위 동서는 듣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유가 '형님'의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나'는 그동안 남이 자신을 어떻게 불까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㉔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감추거나 속이지는 않겠다는 말이다.
- ④ ㉔는 과거의 물건들이 지금 와서는 기능을 상실하여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자신에게서 사라졌다는 뜻이다.
- ⑤ ㉔는 현대 문명의 발전 속도에 대한 '나'의 비판적 태도라기보다는, 과거에 소유욕으로 집을 가득 채웠던 물건들에 치여서 숨이 답답해서 죽을 것만 같아 그 물건들이 싫어졌다는 뜻이다.

[정답/모범답안]

5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는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의 마지막 부분으로 '나'의 내면적 갈등과 변화가 마무리되며 최종적으로 '나'의 고백이 정리 되는 부분이다. '통곡의 벽'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서쪽 성벽 일부 의 명칭으로, 유대인들이 이 성벽 앞에서 울며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A]에서는 이것에 빗대어 그동안 안 자신

이 심정적으로 의지했던 손위 동서를 '통곡의 벽'이라고 하면서, '나'가 울고 싶거나 하소연하고 싶을 때 마주하며 자신의 소회를 토로했던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해방감'은 사랑했던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그동안 애써 억누르며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므로써 얻은 것이다.
- ② 한 번 뵈지도 못한 '시댁 조상 제삿날'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자기 자신보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었다.
- ③ 그동안 '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내색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짐짓 의연한 태도를 지닌 인물로 비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나' 의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꾸미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 ④ '독한 세상'은 '생때같은 아들'을 앗아간 당대의 폭력적인 현실로서 '나'에게 원망의 대상이 된다.

수능특강 문학

개념학습 08 - 심청가

(가) [중모리]

집이라고 돌아오니 부엌은 적막하고 방 안은 텅텅 비었는디 심 봉사 실성 발광(失性發狂) 미치는디 ㉠열사 열사 춤도 추고 허허 웃어도 보며 지팽 막대 홀어 짚고 이웃집을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혹 우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허허 내가 미쳤구나. 방으로 들어 통곡 자탄혈 제 그때에 귀덕 어미 아해 안고 돌아와서 여보시오 봉사님 이 아해로 보더라도 그만 진정하시오. 거 귀덕 어민가. 이리 주소 어디 보세 종종 와서 젓 좀 주소. 귀덕 어미는 건너가고 아이 안고 자탄혈 제 원촌(遠村)에 닭이 울고 찬바람은 스르르 어린 아해 놀래 깨어 젓 달라고 슬피 운다. 심 봉사 기가 막혀 우지 마라 내 자식이 너이 모친 먼 데 갔다. 낙양 동촌 이화정(洛陽東村梨花亭)에 숙 낭자(淑娘子)를 보러 갔다. 죽상지루(竹上之淚) 오신 부인 이비(二妃) 부인을 보러 갔다. ㉡가는 날은 있다가는 오마는 날은 모르겠다. 너도 너의 모친이 죽은 줄을 알고 우느냐 배가 고파 우느냐 강목수생(剛木水生)이지야 내가 젓을 두고 안 주느냐 아무리 달래어도 어린 아해는 그저 우짖듯이 응아 응아 응아 심 봉사 화가 일어나 안었던 아해를 방바닥에다 미다치며 죽어라 썩 죽어라 니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초칠(初七) 안에 어미를 잡아먹어야. 너 죽어도 나 못 살고 나 죽어도 네 못 살리라. 아해를 도로 안고 우지 마라 이 자식이 어서 어서 날이 새면 젓을 얻어 먹여 주마 우지 마라 내 새끼야.

[아니리]

㉢그날 밤을 새노라니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고 눈물로 날을 새었겠다.

[자진모리]

우물가 두리박 소리 얼른 듣고 나설 제 한 품에 아해를 안고 한 품에 지팽이 홀어 짚고 더듬더듬 우물가에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초칠 안에 어미 잃고 기허(氣虛)하여 죽게 되니 이 애 젓 좀 먹여 주오. ㉣우물가에 오신 부인 철석(鐵石)인들 아니 주며 도척인들 아니 주랴 젓을 많이 먹여 주며, 한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봉사님. 예. ㉤이 댁에도 아해가 있고 저 집에도 아해가 있으니 자조자조 다니시면 내 자식 못 먹인들 차마 그 애를 굶기리까. 심 봉사 좋아라고, 허허 감사하고 수복강녕허옵소서. 이 집 저 집 다닐 적에 삼베 질삼 허노라고 히히하하 웃음소리 얼른 듣고 들어가, 여보시오 부인님네 인사는 아니오나 이 애 젓 좀 먹여 주오. ㉥오뉴월 뉘약별에 김매고 쉬는 부인 더듬더듬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이애 젓 좀 먹여 주오. 젓 있는 부인들은 젓을 많이 먹여 주고 젓 없난 부인들은 돈돈씩 채워 주고 돈 없난 부인들은 쌀되씩 떠 주며, 암쌀이나 하여 주오. 심 봉사 좋아라고, 허허 감사허오 만수무강 하옵소서. 젓을 많이 얻어 먹여 집으로 돌아올 제 어덕 밑에 수그려 앉아 아히를 어른다. 허허 이 자식이 배가 뽕뽕허구나.

[중중모리]

둥둥 내 딸이야 허허 둥둥 내 딸이야 이 덕이 뉘 덕이나 동네 부인의 덕이라 너도 어서 어서 자라나서 너의 모친의 본을 받아 현철하고 암전하야 아비 귀염을 보여라. 둥둥 내 딸이야 백미 닛 섬에 뉘 하나, ㉦열 소경 한 막대로구나 둥둥 내 딸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옥을 준들 너를 사라 어덕 밑에 귀남이 아니냐 슬슬 기어라 둥둥 내 딸이야.

둥둥 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땡기 끝에는 준주실 웃고름에는 밀화불수(蜜花佛手) 달 가운데는 옥토끼 위암위암 잘강잘강 엄마 아빠 도리도리 허허 둥둥 내 딸, 서울 가 서울 가 밤 하나 얻어다 두리박 속에 넣었더니 머리 갸만 세 양취가 들랑날랑 다 까먹고 다만 한 쪼각 남은 것을 한 쪽은 내가 먹고 한 쪽은 너를 주마, 어르르르.

[아니리]

아해 안고 돌아와 포단 덮어 뉘어 놓고 동냥차로 나가는디 중고조로 나가겠다.

[중모리]

삼베 전대 외동지어 윈 어깨 들어 매고 동냥차로 나간다. 여름에는 보리동냥 가을이면 나락 동냥 어린 아해 암죽차로 쌀 얻고 감을 사서 허유허유 돌아올 제 그때에 심청이난 하날이 도움이라 일취월장 자라날 제 ㉧육칠 세 되어 가니 모친의 기제사(忌祭祀)를 아니 잊고 혈 줄 알고 부친의 공경사를 의법이 허여 가니 무정 세월이 이 아니냐.

[아니리]

하로난 심청이 부친전 단정히 앉어,

“아버지.”

“오냐.”

“오늘부터는 아무 데도 가지지 마옵시고 집에 앉어 계시오면 지가 나가 밥을 빌어 조석공양하겠네다.”

심 봉사 좋아라고,

“원 이 자식아 내 아무리 곤궁헌들 무남독녀 너를 내보내어 밥을 빌단 말이 될 말이나 오라 오라 그런 말은 말어라.”

[중모리]

아버지 들조시오. 자로(子路)난 현인으로 백 리를 부미(負米)허고 순우의(淳于意) 딸 제영(緹縈)이난 낙양옥(洛陽獄)에 갇힌 아부 몸을 팔아 속죄허고 말 못허는 가마귀도 공림(空林) 저문 날으 반포은(反哺恩)을 헐 줄 아니 하물며 사람이야 비금(飛禽)만 못 허리까. 다 큰 자식 집에 두고 아버지가 밥을 빌면, 남이 욕도 헐 것이요. 바람 불고 날 치운 날 천방지축(天方地軸) 다니시다 치워 병이 날까 염려오니 그런 말씀은 마옵소서.

[아나리]

“원 자식, ㉔그런 말은 어디서 들었느냐 너의 어머니 뱃속에서 죄다 배워 가지고 나왔구나, 네 효성이 그렇거든 한 두어 집만 다녀오너라.”

01. 이 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를 통해서 극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② 어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④ 관용어구를 사용하여 표현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74)

02. ㉔~㉔ 중 ‘창자’가 사건에 개입하여 논평을 하고 있는 것은?

- ① ㉔ ② ㉔ ③ ㉔ ④ ㉔ ⑤ ㉔

75)

03. 다음 중 ㉔에 나타난 ‘부인들’의 태도가 나타난 것은?

- ①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닦아 잊지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 ② 간나희 가는 길흙 사나희 예도듯이,
사나희 네는 길흙 계집이 치도듯이,
제 남진 제 계집 하니어든 일흙 묻디 마오려.
- ③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스라
사람이 되어나서 옳지못 못하면
마소를 갓 곳갈 식위 밥 먹이나 다르랴.
- ④ 비록 못 입어도 남의 옷을 앗디 마라
비록 못 먹어도 남의 밥을 비지 마라
한적곳 때 실은 휘면 고쳐 씻기 어려우니.
- ⑤ 어와 저 조카야 밥 없이 어찌 할고
어와 저 아자바 옷 없이 어찌 할고
머흔 일 다 닐러사라 돌보고저 하노라.

76)

04. ㉔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 ① 매우 긴요하고 소중함.
- ②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님.
- ③ 일이나 물건이 드문드문 나타남.
- ④ 마침 좋은 때에 일이 잘 들어맞음.
- ⑤ 생각지도 않은 일이 우연히 잘 들어맞음.

77)

05. ㉔이 나타내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 ②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 ③ 자신의 불효를 반성하는 태도
- ④ 부친의 한(恨)을 풀어주겠다는 것
- ⑤ 조석으로 좋은 음식을 만들어 공양하겠다는 것

78)

[아니리]

이때 심 황후께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부친이 오시지 않으니 슬피 탄식 우는 말이,

[진양]

이 잔치를 배설(排設)키는 불상하신 우리 부친 상봉혈가 바랬드니 어찌 이리 못 오신고 당년 칠십 노환으로 병이 들어서 못 오신가. 부처님의 영검으로 완연이 눈을 뜨셔 맹인 중에 빠지셨나. 내가 영영 죽은 줄 아르고 애통하시다 이 세상을 떠나셨나. 오디사 무슨 변을 당하셨는가 오날 잔치 망중이니 어이 이리 못 오신고.

[아니리]

이렇듯 탄식하시다 예부 상서(禮部尙書)를 또다시 불러,

“오날도 봉사 거주 성명을 명백히 기록하여 차차 호송하되 만일 도화동 심 맹인이 계시거든 별궁으로 모셔 오라.”

예부 상서 분부 듣고 봉사 점고(點考)를 차례로 하여 내려오는데 제일 말석에 앉은 봉사 앞에 당도하여,

“여보시오 당신 성명은 무엇이요.”

“내 성명은 심학규요.”

“심 맹인 여기 계신다.”

하더니,

“어서 별궁으로 들어가사이다.”

“아니 어찌 이러시오.”

“우에서 상을 내리실지 벌을 내리실지 모르나 심 맹인을 모셔 오라 하셨으니 어서 들어가사이다.”

“내가 이리될 줄 알았어.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디 이 잔치를 배설키는 나를 잡을 양으로 배설한 것이로구나. 내가 더 살어 무엇허리. 내 지팽이나 잡아 주시오.”

별궁으 들어가,

“심 맹인 대령하였소.”

심 황후 살펴볼 제 백수풍신(白首風神) 늙은 형용 슬픈 근심 가득한 게 부친 얼굴이 은은하나 심 봉사가 딸을 보낸 후 어찌 울었는지 눈갓이 희여지고 피골이 상접하고 산호 주렴이 가리어 자세히 보이지 않으니,

“그 봉사 거주를 묻고 처자가 있나 물어보아라.”

심 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마는 먼 눈에서 눈물이 똑똑 떨어지며,

[중모리]

예 소맹이 아뢰리다. 예 소맹이 아뢰리다. 소맹이 사육기는 황주 도화동이 고토(故土) 읍고 성명은 심학규요. 을축년 정월달에 산후경(産後瘵)으로 상처*하고 어미 잃은 딸자식을 강보에다 싸서 안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동냥젖 얻어먹여 겨우 겨우 길러 내어 십오세가 되었는디 효성이 출천하여 애비 눈을 띄인다고 남경장사 선인들께 삼백 석의 몸이 팔려 임당수 제수로 죽은 지가 우금(于今) 삼년이요. 눈도 뜨지를 못하고 자식만 죽었으니 자식 팔아먹은 놈을 살려 주어 쓸데 있소 당장의 목을 끊어 주오.

[자진모리]

심 황후 기가 막혀 산호 주렴 거쳐 버리고 보선발로 우루루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심 봉사 깜짝 놀래 아니 뉘가 날다려 아버지여.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무남독녀 내 딸 청이 물에 빠져 죽은 지가 우금 수삼 년이 되었는디 누가 날다려 아버지여.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임당수 깊은 물에 빠져 죽은 청이가 살어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뜨서 저를 급히 보옵소서. 심 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에이 아니 청이라니 청이라니 이것이 웬일이냐 내가 지금 죽어 수궁을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죽고 없는 내 딸 청이 이곳이 어디라고 살어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답답하여라. 어디 어디 어디 내 딸 좀 보자. 두 눈을 끔적 끔적 끔적허더니 부처님의 도술로 두 눈을 번쩍 떴구나.

[아니리]]

심 봉사 눈 뜬 훈짐에 모도 따라서 눈을 뜨는디,

[자진모리]

만좌 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淳昌) 담양(潭陽) 새갈모 떼는 소리라. 짹 짹 허드니 모도 눈을 떠 버리는구나. 석 달 동안 큰 잔치의 먼저 와서 참여하고 나려간 맹인들도 저희 집에서 눈을 뜨고 미처 당도 못한 맹인 종로에서 눈을 뜨고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실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화내다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떠 보느라고 뜨고 시원이 뜨고 일허다 뜨고 눈을 비벼 보다 뜨고 지어비금주수(至於飛禽走獸)라도 눈먼 짐생까지도 모도 다 눈을 떠서 광명 천지가 되었구나.

06.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창자가 부르는 창과 아니리로 이루어진다.
- ② 당시 서민들의 생활상과 가치관 등이 반영되었다.
- ③ 구비 전승되어 적층 문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 ④ 관객을 고려하여 서민들이 쓰는 말로만 가창된다.
- ⑤ 서사 구조가 ‘현실 - 비현실 - 현실’의 순환 구조로 이루어졌다.

79)

07.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심청은 심 봉사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 ② 심 봉사는 용왕의 도움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
- ③ 심 봉사는 황후에게 목숨만은 살려 달라고 빌었다.
- ④ 황후는 심 봉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심청임을 밝힌다.
- ⑤ 심 봉사는 황후가 심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되었다.

80)

수능특강 문학

개념학습 09 - 시조 3수(흥망이~ / 오백 년~ / 선인교~)

[가]

興亡(흥망)이 有數(유수)하니 滿月臺(만월대)도 秋草(추초) | 로다.

五百年(오백 년) 王業(왕업)이 ㉠牧笛(목적)에 부쳐시니,

夕陽(석양)에 지나는 客(객)이 눈물겨워 | 노라.

[나]

五百年(오백 년) 都邑地(도읍지)를 匹馬(필마)로 도라드니,

山川(산천)은 依舊(의구)하니 人傑(인걸)은 간 | 되 었다.

어즈버, 太平烟月(태평연월)이 | 솟이런가 | 노라.

[다]

仙人橋(선인교) 나린 물이 紫霞洞(자하동)에 | 흘러 | 드러,

半千年(반천 년) 王業(왕업)이 물소리 | 뿐이로다.

아희야, 故國興亡(고국흥망)을 | 무려 | 무엇 | 노리오.

[현대어 풀이]

[가]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운수에 달려 있으니 고려의 궁터인 만월대에도 가을 풀만 무성하다.

오백 년 왕업이 목동이 피리 소리애나 남아 있으니,

석양에 길 가는 나그네가 눈물겨워 하는구나.

[나] 오백 년 이어 온 고려의 옛 서울에 한 필의 말을 타고 돌아보니,

산천의 모습은 예나 다름이 없지만 당대의 인재들은 간 데 없구나.

아아, 고려의 태평했던 시절이 한낱 꿈처럼 허무하도다.

[다] 선인교에서 내려온 물이 자하동으로 흘러들어가니,

오백 년 이어온 왕업도 물소리로만 남았구나.

아이야! 옛 왕조의 흥망성쇠를 물어본 들 무엇하겠느냐?

0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다] 모두 회고(懷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② [가]~[다] 모두 특정한 왕조를 의미하는 시어가 나타나 있다.
- ③ [가]와 [나]는 대조를 통해 시적 화자의 경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와 [다]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시적 화자의 경서를 드러낸다.
- ⑤ [나]와 [다]에는 무상감을 상징하는 시어가 드러나 있다.

81)

02. [가]와 [나]의 상황과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 ① 비육지탄(髀肉之嘆)
- ② 망양지탄(亡羊之歎)
- ③ 맥수지탄(麥秀之嘆)
-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⑤ 만시지탄(晩時之歎)

82)

0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 ㉠ 촉각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
- ㉡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
- ㉢ 흥망성쇠의 무상함을 상징한다.
- ㉣ 시적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짐작하게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83)

[가]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¹⁾도 ㉡추초(秋草)²⁾ | 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³⁾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온 객(客)이 눈물계워 흐노라.

- 원천석

[감상] 이 작품은 길재의 시조와 함께 고려 유신의 회고가라고 이른다. 이 작품은 갑초가 우거진 고려의 옛 궁터를 보면서 지은 시로 고려의 멸망으로 인해 느끼는 무상감이 잘 나타나 있다. 초장과 중장의 '추초'와 '목적'은 흥망성쇠의 무상함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고, 종장의 '객'은 자신을 '객'으로 표현하여 주관적 정서를 객관화하고 있다.

[나]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⁴⁾히 되 ㉦인걸(人傑)⁵⁾은 간 되 었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煙月)이 ㉧꿈이런가 흐노라.

- 길재

[감상] 고려의 옛 도읍지를 돌아보며 느끼는 망국의 한과 안타까움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선천의 모습과 인걸을 대조하여 역사의 무상감을 느끼게 하는 문학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흥망성쇠와 인생무상을 읊은 노래로 작자는 고려의 서울이었던 송도를 혼자서 말을 타고 들어간 뒤 변하지 않는 산천(자연)과 대비되어 변해 버린 '인걸'의 모습에 절망감을 느끼고 이어 인생무상마저 느낀다.

[다] 선인교(仙人橋)⁶⁾ 나린 물이 자하동(紫霞洞)⁷⁾에 흘러 드러

반천 년(半千年) 왕업(王業)이 ㉨물소리뿐이로다

아희야 고국 흥망(故國興亡)⁸⁾을 물러 무엇히리오

- 정도전

[감상] 고려 멸망이 가져오는 허망함과 무상감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이는 조선 개국 공신의 회고가이다. 고려 왕조의 멸망과 조선 왕조의 개국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는 작자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조선 개국 공신으로 이 태조의 총애를 받았던 작자는 한 나라의 흥망이 한낱 꿈과 같다는 무상감을 느낀다. 종장의 '무려 무엇히리오'라는 표현에서는 이를 극복하려는 개국 공신으로서의 면모가 엿보인다.

[어휘 풀이]

1) 만월대(滿月臺) : 고려 왕조의 궁터. 2) 추초(秋草) : 가을 풀. 3) 목적(牧笛) : 목동의 피리 소리. 4) 의구(依舊) : 옛날과 같이 변함이 없음. 5) 인걸(人傑) : 뛰어난 인재, 여기서는 고려 왕조의 인물. 6) 선인교(仙人橋) : 개성에 있는 다리 이름. 7) 자하동(紫霞洞) : 개성 송악산에 있는 마을 이름. 8) 고국 흥망(故國興亡) : 갑초가 무성한 들판.

[현대어 풀이]

[가]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운수에 달렸으니 고려의 궁터인 만월대도 가을 풀만이 우거져 있구나.
오백 년 고려 왕조의 업적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 담겨 있으니,
석양에 지나는 나그네가 눈물겨워하는구나.

[나] 오백 년 이어 온 고려의 옛 도읍지에 한 필의 말을 타고 들어가니,
산천의 모습은 예나 나름이 없지만 인결은 간 데 없다.
아아, 고려의 태평했던 시절이 한낱 꿈처럼 허무하도다.

[다] 선인과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이 자하동으로 흘러들어,
오백 년 동안 화려했던 고려 왕조가 물소리밖에 남기지 않았구나,
아아아, 이미 망해 버린 나라의 흥망이 물어 봐야 하겠느냐.

04. [가]와 [나] 공통점이 아닌 것은?

- ① 평시조의 전형적 율격을 보여 주는 시가이다.
- ② 시대 상황에 대한 경서적 반응이 나타나 있다.
- ③ 낙천적인 자세로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
- ④ 비유적 시어를 이용하여 시적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선경후경(先景後情)의 시상 전개 방식을 따르고 있다.

84)

05.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장에서는 고려 왕조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 ② 중장에서는 감각적 시어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종장의 '아희야'에서는 시상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 ④ 중장에서는 변화하는 세태를 따라갈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화합과 조화'의 의미를 함축하는 '물'의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85)

06. [다]의 화자가 [가], [나]의 화자에게 해 줄 법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도 있는 법, 그것이 세상사의 이치가 아닐까요?
- ②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다시 함께 나아갑시다.
- ③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난날의 영화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봅시다.
- ④ 우리가 절대자에 귀의한다면 이러한 무상감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⑤ 아름답고 위대했던 지난날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나마 영원히 간직하도록 합시다.

86)

07. ㉠~㉣중, <보기>의 밑줄 친 것과 상징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윤동주, <참회록>

- ① ㉠ ② ㉡ ③ ㉢ ④ ㉣ ⑤ ㉤

87)

08. ㉠~㉣중 함축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88)

[바로 보는, 바르게 보는 해설]

O X 정답

춘설

1	X	2	O	3	X	4	O	5	O
6	X	7	아래 참조	8	O	9	X	10	X
7번 답	산과 화자가 마주 보고 있다								

정석가

1	O	2	X	3	X	4	역설적	5	X
6	6연	7	O	8	1연	9		10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1	O	2	X	3	X	4	O	5	X
6	X	7	O	8	X	9	O	10	X

이춘풍전

1	O	2	X	3	X	4	O	5	X
6	O	7	X	8	X	9	O	10	비장(남장)

눈물

1	O	2	O	3	아래참조	4	X	5	O
6	O	7		작은 생명, 나의 전체, 이뿐					

문제 해설

- 1) ㉠ ㉡ 이 작품은 시각, 촉각,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점 세련되면서도 예스러운 시어를 사용한 점, 봄에 대한 신선함과 설렘의 감정을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낸 점 등이 특징이다. 흰색과 푸른색 등의 대비되는 색채가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화자의 내적 갈등은 찾아볼 수 없다.
- 2) ㉠ ㉡ ㉢~㉤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계절의 변화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부각하고 있다. ㉠은 놀라움의 정서를, ㉡은 철 지난 눈에 대한 감흥을, ㉢은 봄바람의 신선함을, ㉣은 그러한 자연에 감화된 화자의 흥취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에는 겨울이 지나감을 아쉬워하는 심리와 설령 춥다 하더라도 봄의 상쾌함과 신선함을 만끽하고자 하는 심리가 모두 담겨 있다.
- 3) ㉠ ㉡ 화자와 멧부리가 이마받이한다는 것은 눈 덮인 산의 서늘함이 이마에 바로 부딪히는 것 같다는 표현이다. 즉, 화자와 산의 거리가 사라졌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 4) ㉠ ㉡ ㉢
 ㉠ 화자는 눈과 추위에서 ‘겨울’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봄의 기운’을 느끼고 있다. ㉡ ㉢ 화자는 ‘우수절(雨水節)’ 들어 초하루 아침에 문을 열어 산을 바라보고 있다. ㉣ 화자가 ‘흰 옷고름’에서 봄의 향기를 느끼고 있음을 4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화자는 1연에서 산봉우리를 보고 먼 산이 이마에 차다고 말하고 있다. ㉥ 화자가 7연에서 ‘도로 좁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봄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는 뜻이다.
- 5) ㉠ ㉡ ㉢
 ㉠ 감정 ‘이입’은 어떤 대상에 자신의 감정을 불어넣는 것인데, 이 시에는 그런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 ‘선뜻!’이라는 부분에 영탄법이 나타난다. ㉣ ‘햇빛 벗고 도로 좁고 싶어라’에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서늘옅고 빛난’이라는 표현에서 촉각과 시각을 공감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1연에서 7연까지 모두 각 연에 2행씩 배치하고 있다.
- 6) ㉠ ㉡ ㉢
 ㉠ 이 시에 ‘바람’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되지는 않았다. ㉡ ㉢ <보기>에서는 봄비의 소리를 통해 봄을 나타내고 있다. ㉣ 이 시는 ‘눈이 덮인 멧부리’라는 표현을 통해 눈 덮인 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이 시는 1연에서 ‘이마에 차라’라는 표현을 통해 봄의 기운을 촉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보기>는 ‘풀썩은 이미 얼마나 돋았는고’라는 말을 통해 봄의 도래를 새싹이 돋는 풍경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 7) ㉠ ㉡ ㉢
 ㉠ 이 시에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법’은 나타나 있지 않다. ‘반어법’이 아니라 모순적인 내용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역설법’이 사용되

었다. **㉠** <보기>에서도 매화가 피지 못하는 고난과 시련은 ‘춘설’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 <보기>는 평시조로 4음보의 정형적 율격을 지키고 있다. **㉢** <보기>도 ‘필 동 말 동 하여라’를 통해 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보기>에서 ‘춘설’은 매화가 피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꾼으로 그려지고 있다.

8) **답 ④**

해 평론은 작품에 대해 글쓴이의 관점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작가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 비평은 작품에 대한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 비평은 작품이 지닌 특징을 분석하면서, 때로는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기도 한다. **㉢** 비평을 할 때에는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해야 한다. **㉤** 작품을 비평할 때에는 작가, 현실, 독자 등 다양한 대상과의 관련성에 주목하면서 평가한다.

9) **답 ④**

해 이 글은 <춘설>의 내용을 해석하고 있을 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 <춘설>의 본문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 ‘봄추위’라는 뜻을 지닌 한자어 ‘춘한(春寒)’과 순우리말 ‘꽃샘’을 비교하고 있다. **㉢** ‘춘설이 난분분하니’의 옛시조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한시를 인용하고 있다. **㉤** ‘꽃샘’이라는 단어의 어감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계절까지도 이웃 친구처럼 의인화하며 살아왔던 삶을 얘기하고 있다.

10) **답 ②**

해 ‘선뜻’이라는 말에 느낌표가 붙은 것은 생각지도 않은 눈이 내렸기 때문이다. 겨울에 눈이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봄에 눈이 왔기 때문이다.

11) **답 ②**

해 봄눈이 봄의 방해자가 되는 것은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12) **답 ②**

해 글쓴이는 작품에 나타난 시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 자체만을 중시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13) **답 ④**

해 글쓴이는 시간을 되감아 그것을 새롭게 할 줄 아는 지용의 상상력을 가리켜 시인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시인은 사물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 일상적 관습 속에서 기계적으로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시인이 될 수 없다. **㉡** 이 글에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이 글에서 세상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 글쓴이는 시인의 언행일치(言行一致)에 대해 아무 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14) **답 ⑤**

해 ‘봄눈’은 겨울과 봄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브레이크’는 우리가 현재 달려가고 있는 속도를 깨닫게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둘 다 현재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15) **답 ③**

해 시인이 ‘도로 출고 싶다’고 말한 것은 추위를 통해 봄의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이지, 결코 겨울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다. **㉠** 시인은 두꺼운 솜옷을 벗고 추위를 느낌으로써, 오히려 이 추위를 통해 봄의 기운을 맞이하고 있다. **㉡** 시인이 이마받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좁은 공간에 있다가 바깥을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외부와 단절된 닫힌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시인은 ‘얼음이 금 가고 파릇한 미나리의 새순이 돋고 물밑에서 꿈꾸도 않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것’을 통해 봄의 도래를 감지하는 사람이다. **㉤** 글쓴이는 지용에 의해서 한국 시의 역사상 처음으로 ‘봄눈’과 ‘꽃샘’이 봄을 창조하는 시학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정석가

16) **답 ③**

해 이 시는 고려 시대 때 불린 가요로 임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랑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민중 사이에서 불리다가 궁중의 악곡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민중의 언어에 세련되고 단아한 표현도 엿보인다. 그러므로 투박한 민중의 표현으로 내면을 드러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유덕(有德)하신 님을 여히오와지이다’라는 후렴구를 반복하고 있다. **㉡** 사랑과 믿음을 구슬, 끈 등에 비유하고 있다. **㉢** 각 연마다 불가능한 상황을 드러내는 역설적 과정의 기법이 사용되었다. **㉤** 임과 이별할 수 없으면서 ‘이별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반어라고 할 수 있다.

17) **답 ②**

해 2~5연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유사한 형식을 반복하며 화자는 자신이 말하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임과 이별하겠다’라고 표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은 반어적인 표현으로, ‘임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8) **답 ④**

해 6연은 앞의 연들과 달리 세련된 비유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외오곰 녀신돌’은 ‘외롭게 살아간들’이라는 의미로, 주체는 화자 자신이다. 그러므로 임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은 임과 화자가 이별하게 되는 부정적인 상황을 상징한다. **㉡**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한번 맺어진 임과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조문 히’는 ‘천년’이라는 의미로 임과 헤어져 살아가는 오랜 세월을 의미한다. **㉤**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라는 말 속에는 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영원할 것을 강조하는 화자의 정서가 담겨 있다.

19) **답 ③**

해 이 시의 화자는 임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랑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임과의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다짐하고 있다. **㉠** 민중적인 분위기가 섞여 있다. **㉡** 향락적이기보다는 애절한 분위기이다. **㉢** 세시 풍속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 민중의 노래였다가 궁중 악곡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주로 민중적 시어를 사용하고, 세련된 분위기의 시어가 가미되었다.

20) **답 ④**

해 <보기>에 의하면 ‘정석가’는 민중들이 향유하던 민요였다가 궁중 음악으로 변모한 셈이 된다. 정석가의 1연은 궁중 악곡과 관련된 세련됨을 보여 주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은 민중의 일상생활에서 다룰 수 있는 제재들을 활용하여 전개되고 있다.

21) **답 ④**

해 반복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운율과 강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석가’에서는 임과 관련된 구절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2) **답 ⑤**

해 이 시는 세 개의 내용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보기>는 한시의 ‘기-승-전-결’ 구조에 따라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23) [답] ⑤

[해]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 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으므로, 역순행적 구성에 의한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 ① 이 소설의 시점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② 이장과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③ ‘황만근이 없어졌다’는 문장을 통해 황만근이 없어진 사건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④ 황재석이나 황동수를 소개할 때 수식어를 통해 인물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24) [답] ④

[해] 사투리는 구수한 일상어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논리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지 않는다. 논리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은 ‘표준어’이다. [오] ① 사투리를 통해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사실성을 주고 있다. ② 사투리를 통해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투리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③ 시골에서 쓰일 법한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토속성과 향토성을 살리고 있다. ⑤ 사투리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바로 눈 앞에 그려질 것 같은 현장성을 나타내고 있다.

25) [답] ③

[해] 민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는 황만근 씨가 없어진 이유를 찾아내려 하는 것이다. 또한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민 씨는 대화를 주도하고 있다.

26) [답] ⑤

[해] 황동수는 황재석의 말에 대해 황만근이 하루 외박했던 사실을 우스개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일부러 한 말이 아니며, 더욱더 바보처럼 행동한 것도 아니다. [오] ① 민 씨는 이장이 황만근씨에게 귤기 대화 참가를 따로 부탁한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② 황재석은 ‘그래도 질래 있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만그이가 ~ 한 분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라는 말을 통해 만근이가 거의 외박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이장은 만근이가 사라진 것보다 자신의 소가 굶는 것을 더 중시 여기고 있다.

27) [답] ③

[해] 민 씨가 버럭 소리를 지른 것은 이장이 자신을 반동가리로 몰아붙였기 때문이지, 이장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 ① 이장은 황만근 씨가 경운기를 끌고 간 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투쟁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② 이장은 민 씨에게 ‘사람 말을 알아듣고 못하고’라고 말하고 있다. ④ 민 씨는 ‘이장님부터 술선수범을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이장에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⑤ 이장은 자신이 ‘올때나 바쁜 사람인데’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트럭을 타고 간 일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28) [답] ④

[해] 민 씨는 이장의 말에 자신은 반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반동가리 났다’는 것은 ‘반편’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장의 말에서 ‘누구’는 황만근을 의미하며, 이장은 민 씨가 황만근처럼 지능이 낮아져서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거냐며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다.

29) [답] ①

[해] 이 글은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묘지명’ 형식의 글을 덧붙여 주인공 황만근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묘지명의 형식에 따라 황만근에 대해 존칭을 표현한 것이다.

30) [답] ③

[해] ‘황만근’은 마을의 굶은 일을 도맡아 나서서 했을 뿐, 마을의 비전을 제시하며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는 아니었다. [오] ① 만근은 마을 회관 변소에서 분노를 파내는 일을 나서서 했다. ② 만근은 혼잣말이 된 노인들에게는 더 자주 거름을 가져다 주었다. ④ 만근은 아이들이 시비를 물으러 가면 언제나 공평무사하게 판단해 주었다. ⑤ 만근은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으며, 마을의 분노를 파내는 일을 성심성의껏 했다.

31) [답] ④

[해] 이 글의 ‘묘지명’ 속에는 황만근이 자기 성찰이 엄격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32) [답] ④

[해] 작가가 어릴 적에 보았던 ‘바보’는 무시당하거나 굶어 죽는 일이 없었다. 농촌 공동체에서 ‘바보’를 잘 돌보았기 때문이다. [오] ① ‘만근이도 알 까다’라는 말을 통해 만근이가 바보형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작가는 자신이 어렸을 적에 본 바보의 모습을 통해 바보형 인물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다. ③ 황만근은 아이들의 시비를 판단해 주는 존재로 그려질 뿐, 아이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지 않다. ⑤ 황만근이 마을 회관의 변소에서 분노 파내는 일을 도맡아 했다는 것을 통해, 황만근이 마을에서 무시당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춘풍전

33) [답] ③ [해] 이춘풍은 추월에게 재물을 빼앗기고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자, 추월에게 하소연하여 하인 노릇을 하도록 허락을 받는다. 기생인 추월에게 아가씨 소리까지 하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종략> 이후의 내용을 보면 춘풍이 비장 덕에 돈을 되찾고 마치 자신이 장사를 하여 돈을 번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구박한다. 이것으로 보아 춘풍이 돈을 번 것처럼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인 것은 비장의 덕분이지, ㄷ의 상황이 춘풍으로 하여금 각성을 하게 한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① 재물을 빼앗기기까지 추월은 춘풍과 원앙금침을 같이 하며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맹세를 하였었다. 하지만 재물이 바닥나자 추월은 춘풍을 내쫓으며 온갖 구박을 다 주고 있다. ② ㄴ에서는 양반으로서 추락한 권위도 잊은 채 기생에게 빌붙고 있는 춘풍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고, ㄹ에서는 마치 자신이 돈을 번 것처럼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에 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④ 아내 앞에서는 당당한 태도를 보이다가, 비장이 나타나자 갑자기 비굴한 모습을 보이며 안절부절못하는 춘풍의 이중적인 태도를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⑤ 춘풍이 당황하며 안절부절못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비장이 찾아온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내에게 마치 돈을 벌여놓은 듯 당당한 태도를 보였는데 비장으로 인해 자신의 거짓이 탄로날까 걱정도 되기 때문이다.

34) [답] ② [해] 춘풍은 재물이 있을 때 추월과 원앙금침을 같이 하며 평생을 같이 하겠노라는 다짐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과거의 상황이 되어 버림을 받고 있는 처지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처지가 변하자 인심도 변하는 세태를 풍자한 정철의 시조가 춘풍의 처지와 심정을 가장 잘 보여 준다. ② 현대어 풀이 : 나무도 병이 들면, 정자나무라도 (그 밑에서) 쉼 사람이 없구나. / 나무가 무성하여 호화롭게 서 있을 때에는 오고가는 이들이 다 쉬더니 /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꺾인 후에는 새마저도 앉지 않는구나. (오답피하기) ① 월산대군의 시조로, 가을 밤의 풍류와 정취를 보여 주고 있다. ③ 김성기의 시조로, 자연에 묻혀 사는 한가로운 생활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원호의 시조로, 임금인 단종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⑤ 서경덕의 시조로, 황진이를 만나면서 느낀 늙음에 대해 한탄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35) [답] ④ [해] 춘풍의 처는 비장으로 변장하여 남편이 추월에게 잃은 재산을 모두 되찾게 해 주고는 집에 와서 모든 척하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춘풍이 집에 돌아오자 놀라워하며 춘풍을 반겨주고 있는 것이다. 아내는 물론 춘풍의 과거 처지를 모두 알고 있지만 지금은 모든 척하면서 반기고 있다. 아내는 춘풍의 태도가 변하지 않은 것을 보고서야 비장의 복색으로 찾아와 남편을 놀라게 하고 있다. ① ‘들경막의 장작, 전당(典當)집의 은촛대, 썩은 나무 박힌 뿌리’는 모두 현재 이춘풍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② 추월이가 자신의 태도가 변한 것에 대해 변명을 하는 부분으로, 이춘풍과 같이 재산을 털린 사람이 더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과 같은 기생은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것이기에 자신의 마음이 변한 것을 탓하지 말라고도 한다.

36) [답] ⑤ [해] 이 작품에서 이춘풍은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춘풍의 처는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것은 남성 중심의 조선 사회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여성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 냄으로써 여성 또한 남성 못지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춘풍의 처는 전통적 윤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37) 답 ⑤

해 이 작품은 무능하고 방탕한 남편이 가정을 몰락하게 하고, 슬기롭고 유능한 아내가 가정을 재건하는 이야기로서 남성보다 여성을 우위에 두고 남성 사회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38) 답 ②

해 죄인들을 국법에 의해 엄정히 다스리는 것을 알 수 있다.

39) 답 ③

40) 답 ④

41) 답 ②

해 ㉠은 집에 돌아온 춘풍이 아내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것에 대해 서술자가 직접 등장하여 인물의 행동을 비판하는 대목이다.

42) 답 ④

해 가부장적인 질서에 의해 여성들을 억압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소설의 등장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열녀상' 제시와는 거리가 멀다.

산돼지

43) 답 ④

해 [세부 내용의 파악] 원봉의 첫 번째 대사 '바자에 회계 측난 오십여 원 돈이란 것은 내가 써 버린 것이 사실이다. 놀랄 일이지? 현금과 출납부 사이에 측나는 것은 돈이 실제로 써 없어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부 기입이 잘못되었거나 하는 이외에는 틀릴 까닭이 없지 않니?' 라는 부분과 자신의 잘못을 청년회에서 깨끗하게 밝혀겠다는 뒤의 내용을 통해 원봉이 바자회의 수익금을 유용한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답 ③

해 [인물의 심리 파악] ㉠에 담긴 원봉의 심리는 자조이다. 즉 스스로를 비웃는 것이다. 청년회의 상무 간사 불신임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라는 혁의 제안을 원봉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매우 소극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상무 간사 자리에서 물러나려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비판하는 혁에게 대해 원봉은 자조적인 말로 '설마 나 같은 산돼지보다 나을 테지.' 라고 말한다. 무력한 자기 자신을 비웃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심리가 드러난 것은 ③이다. 농사를 정도 빚만 늘어나는 농사를 내팽개쳐 버리고 싶다는 자조적인 한탄이 담겨 있다. ㉡ ① 자기 희생 의지가 드러나 있다. ② 유한한 인생에 대한 서러움이 드러나 있다. ④ 삶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⑤ 부정적 현실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겠다는 다짐이 드러나 있다.

45) 답 ②

해 [발화의 의도 추리] 이 글에서 원봉은 청년회의 불신임안을 받아들여 간사에서 물러나려고 한다. 이러한 원봉의 태도는 차혁에게는 매우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비쳐진다. 문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원봉에게 차혁은 '상황에 무기력하게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라는 의도로 말을 하며 꾸짖고 있다.

46) 답 ④

해 [세부 내용의 파악과 갈래의 특성 적용] 이 글에서 원봉은 매우 파괴적이며 저돌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영순을 내갈기며) 너까지 날 산돼지 대접을 하려드니?' 의 대사에서 보듯 쉽게 흥분하고 파괴적이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차분하고 냉정한 인상이 강하게 부각되도록 분장한다고 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47) 답 ④

해 최원봉은 자신의 처지를 돼지 이야기와 개 이야기를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8) 답 ④

해 개의 위선자는 '혁'을 염두에 둔 말이다.

49) 답 ②

해 '집돼지'는 인간이 만든 조건 속에서 사는 돼지로, 정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인물을 의미하는 상징적 대상이다.

50) 답 ④

해 이 글은 비극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이다.

51) 답 ④

해 '어름철 그믐날 밤의 하늘과 같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한 내용상 어두운 분위기의 조명이 적절하다.

52) 답 ③

해 원봉이네는 병정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으므로, '소원 따위를 들어 달라고 애처롭게 사정하며 간절히 빌.'을 뜻하는 '애걸복걸(哀乞伏乞)'이 가장 적절하다.

53) 답 ①

해 원봉의 출생에 관한 진실을 숨기고 있는 최 주사댁은 원봉의 말을 듣고 당황하고 있다.

54) 답 ⑤

해 원봉이 잠들고 무대가 어두워지는 것으로 보아, 원봉이의 꿈속으로 장면이 바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55) 답 ⑤

해 이 글에서 원봉은 사실을 넘지시 빚대며 최 주사댁에게 영순과 자신이 친남매간간가를 추궁하고 있으며, 최 주사댁은 원봉의 추궁을 미친 소리를 한다며 피해 가고 있다. 즉, 원봉이 최 주사댁을 추궁하고 있으며, 최 주사댁은 원봉의 추궁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 ① 원봉은 차혁을 '도적놈'에 비유하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원봉은 스스로를 산돼지라 부르면서 집 안에다 두고 기르는 일이 벌써 틀린 일이라며 현재 생활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최 주사댁은 '이제는 진저리증이 난다.', '요새 와서는 밤이면 돼지 꿈에 가위만 놀려 못 견디겠다.'라고 말하며 원봉으로 인해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③ 영순의 결혼 상대를 놓고 원봉과 최 주사댁은 갈등을 빚고 있다. ④ 최 주사댁은 영순을 차혁과 결혼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으며, 차혁이 영순의 배우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56) 답 ③

해 이 글은 소광리 소나무 숲에 간 경험으로부터 삶의 일반적인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다. 소나무 자체의 관찰과 묘사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

57) 답 ④

해 글쓴이는 조선 정궁의 기본 공제를 복원하는 일보다 수 백 년 풍상을 겪어온 소나무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58) 답 ②

해 인간이 소비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소비의 객체로 전락한다는 말은, 인간마저도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리는 소비재와 같이 여겨지는 세태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59) 답 ①

해 글쓰이는 자연을 생산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60) 답 ⑤

해 소나무의 특징 중 '절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⑤이다. ⑤에서는 봄의 계절감과 선경(仙境)의 분위기를 살리는 소재로 '솔꽃가루'가 사용되었다.

61) 답 ①

해 '소나무 같은 사람'은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만족하고 오랜 풍상을 겪어 낸 소나무와 같이, 황폐해진 땅과 사회를 묵묵히 지키며 희망을 키워 내는 사람을 뜻한다.

62) 답 ㉠ : 체념 ㉡ : 저력(희망)

해 '당신'은 슬방울을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의 표현으로 생각했지만, 글쓰이는 위기에서도 소생할 수 있는 끈질긴 저력을 지닌 존재로 보았다.

63) 답 ③

해 스스로 그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두려움을 유발하는 대상일지라도 해칠 수 없다는 말이다. 황폐해져 가는 사회에서도 슬방울의 저력을 믿는 한 희망이 남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눈물

64) [답] ② [해] 이 작품의 핵심 이미지로서의 '눈물'은 '육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에 비유됨으로써 눈물이 슬픔을 환기한다는 일반적인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다. 눈물은 생명(혹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존재)이며, '흠도 티도, / 금 가지 않은' 순수한 것이다. 그것은 시인에게 유일무이한 가치인 동시에 영원하고 불변적인 가치가 된다. 따라서 눈물은 일반적 의미인 슬픔이나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 도달한 2차적 의미로서 궁극적 가치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65) [답] ② [해] 이 시에서 청자로 오해하기 쉬운 대상이 '당신'이다. 그러나 화자는 절대자인 당신께서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눈물을 지어 주셨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구체적인 청자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66) [답] ③ [해] [A]에서 '꽃'과 '웃음'은 삶의 환희를 뜻하고, '열매'와 '눈물'은 삶의 고뇌와 시련을 거쳐 도달한 결실의 세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꽃'은 '열매'에 대해서, '웃음'은 '눈물'에 대해서 각각 대립적인 관계를 갖는다. '꽃'은 순간적인 아름다움을, '열매'는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며, '웃음'은 일시적인 기쁨을, '눈물'은 불변의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③의 내용은 타당한 진술이라 할 수 없다.

67) 답 ④

68) 답 ③

해 이 시의 시적 화자는 5~6연에서 '눈물'이 '열매'와 같다고 말하고 있다. 즉, 슬픔이 단순한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통해 삶이 성숙해간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69) 답 ④

해 이 시에서 '꽃'은 표면적, 일시적, 현상적인 삶의 기쁨을 의미한다. '열매', '눈물'과 반대되는 의미의 시어이다.

70) 답 ⑤

해 ㉠~㉣는 '눈물'의 의미로 삶의 열매와 같은 것으로 순결하고 절대적인 가치의 의미이고, ㉤는 일시적인 삶의 기쁨의 의미를 가진다.

71) 답 ⑤

해 슬픔을 새로운 삶의 결실을 위한 토대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이 시뿐이다. <보기>의 화자는 아이의 죽음을 슬퍼할 뿐이다. ㉠ 아 시와 <보기>의 시인 모두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 이 시들을 쓰게 되었다. ㉡ 이 시에서는 절대자를 통한 슬픔의 승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어체를 사용하여 경건하게 말하고 있으나, <보기>에는 경어체가 나오지 않는다. ㉢ 이 시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지 않으나, <보기>에서는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여 니'의 표현에서 화자의 외로움이 나타나고 있다. ㉣ 이 시에서는 '꽃', '열매' 등으로, <보기>에서는 '산새' 등으로 시적 대상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72) 답 ①

해 2연의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와 4연의 '나의 가장 나아준 지닌 것'은 모두 '눈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3연에서 '더욱 값진 것으로 / 드리라 하올 제'를 통해 '눈물'이 가장 고귀하고 값진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즉, '눈물'의 절대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73) 답 ⑤

해 절대자가 나에게 먼저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눈물'을 지어 주신 이유는 '웃음'을 통해서만 완전한 삶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웃음'이란 삶의 기쁨인데, 이러한 기쁨은 유한한 가치를 지닌 일시적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고 만다. 하지만 '눈물'은 그 안에 씨앗을 간직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 '열매'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절대자는 나에게 먼저 삶의 기쁨을 알게 하셨지만, 이로써는 완전한 삶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이 '눈물'을 통해 삶의 슬픔을 알게 하신 것이다.

심청전

74) 답 ②

해 심 봉사와 심청의 대화는 심청의 효성이 지극함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극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 "동동 내 딸이야 허허 동동 내 딸이야." 등에서 어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심청이 태어나서 일취월장 자라 육 칠세가 될 때까지의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 "백미 다섯 섬에 뉘 하나, 열 소경 한 막대로구나." 등에서 관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75) 답 ④

해 이 글은 판소리 사설로 '창자'가 '창(노래)'과 '아니리(사설)'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이 중 ㉠ "우물가에 오신 부인 철석인들 (젓을) 아니 주며, 도척인들 (젓을) 아니 주라."는 심청의 가련한 처지를 동정하여 인정이 없고, 도적 같은 사람이라도 심청에게 젓을 주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창자'가 사건과 인물에 대해 논평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심 봉사의 말과 행동, 사건의 서술을 나타내고 있다.

76) 답 ⑤

해 ㉡는 심 봉사가 어머니를 잃은 갓난아기인 심청에게 동냥젓을 구해 먹이는 장면으로, 심청 부녀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젓을 나누어 주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따뜻하고 넓은 마음이 드러나 있다. 이 장면은 서로 도우며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상생의 정신을 담고 있다. ㉢는 정철의 <훈민가> 중 제11수로 어려울 때 서로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나타나 있다. ㉣ ① 정철의 <훈민가> 중 제4수로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권유하고 있다. ② 정철의 <훈민가> 중 제6수로 남녀유별(男女有別)을 이야기하고 있다. ③ 정철의 <훈민가> 중 제8수로 마을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권장하고 있다. ④ 정철의 <훈민가> 중 제14수로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77) 답 ①

해 ㉠ "열 소경 한 막대로구나"는 매우 긴요하고 소중한 것을 이르는 속담이다. ㉡ ② "여든에 이 앓는 소리"라는 속담의 뜻이다. ③ "가물에 콩 나듯 한다."라는 속담의 뜻이다. ㉢ ④ "장수 나자 용마(龍馬) 난다."라는 속담의 뜻이다. ㉣ ⑤ "가던 날이 장날"라는 속담의 뜻이다.

78) 답 ②

㉠ ‘그런 말’은 심청이 ‘자로, 제영, 반포은’을 언급하면서 자기를 기른 부모의 은덕을 갚겠다고 한 말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부모의 은덕에 보답하는 것’이 ㉠이 나타내는 것과 가장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79) 답 ④

㉠ 판소리의 관객은 평민뿐 아니라 양반층도 포함되어 있어, 판소리는 서민층의 어투에 양반층을 고려하여 한문투를 섞어서 공연하였다. 따라서 관객을 고려하여 서민들이 쓰는 말로만 가창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80) 답 ⑤

㉠ 심 봉사는 심청이 죽은 줄로만 알고 황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죄를 아뢰며 죽여 줄 것을 요청한다. 뒤늦게 심청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그때서야 심청을 알아본다. ㉡ ① “심 황후 살펴볼 제 백수풍신(白首風神) 늙은 형용 슬픈 근심 가득한 게 부친 얼굴이 은은하나 심 봉사가 딸을 보낸 후 어찌 울었는지 눈갓이 희여지고 피골이 상접하고 산호 주렴이 가리어 자세히 보이지 않으니, “그 봉사 거주를 묻고 처자가 있나 물어보아라.”에서 심청은 심 봉사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부처님의 도술로 두 눈을 번쩍 떴구나.”에서 알 수 있듯이 심 봉사는 용왕님이 도움이 아니라 부처님의 도술로 눈을 뜨게 된 것이다. ③ 심 봉사는 목숨을 살려 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죽여 달라고 청했다. ④ 황후는 심 봉사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확인하고 자신이 심청이라고 밝혔다.

홍망이 유수하니~ / 오백 년 도움지를~ / 선인교 나린 물이~

81) 답 ③

㉠ [나]에서는 山川(산천)과 人傑(인걸)을 대조하여 무상감을 부각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대조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① [가]~[다] 모두 고려 왕조를 회고하고 있다. ② [가]의 ‘五百年(오백 년) 王業(왕업)’, [나]의 ‘五百年(오백 년) 都邑地(도읍지)’, [다]의 ‘半千年(반천 년) 王業(왕업)’이 고려 왕조를 의미하는 시어이다. ④ [가]의 ‘牧笛(목적)’, [다]의 ‘물소리’는 시적 화자의 무상감을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⑤ [나]의 ‘꿈’과 [다]의 ‘물소리’는 무상감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82) 답 ③

㉠ 망국의 슬픔을 탄식하는 것이므로,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인 ③이 적절하다. ㉡ ①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이다. ②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④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윈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⑤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을 이르는 말이다.

83) 답 ③

㉠ ㉠은 목동의 피리 소리로,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홍망성식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84) 답 ③

㉠ [가]는 망국의 슬픔을, [나]는 망국의 한과 인생무상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절망적 상황의 극복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 ① 세 작품 모두 3장 6구의 평시조 율격을 보이고 있다. ② 세 작품 모두 고려의 멸망이라는 시대 상황을 소재로 하여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④ ‘추초, 목적, 산천, 물소리’ 등의 비유적 시어가 사용되고 있다. ⑤ 평시조의 경우, 보통 초·중장 두 행이 화자가 겪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면, 종장은 화자의 심정을 그려낸다.

85) 답 ⑤

㉠ [다]의 ‘물’은 융성했던 고려 시대의 모습, 혹은 나라가 망한 뒤에 느끼는 ‘허망함’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 ① ‘선인교, 자하동’ 등은 고려의 수도 개성의 지명이다. ② ‘물소리뿐이로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뜻이다. ③, ④ 종장에 들어오면서 시상의 반전이 생겨나 회고의 정에 빠져드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는 의미가 생겨나고 있다.

86) 답 ①

㉠ [다]의 화자는 고국 홍망, 즉 고려가 망한 것을 두고 이제 와서 다시 따져 봐야 소용없음을 설파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가], [나]의 화자의 태도가 다른 태도로, 은연중 흥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세태에 순응할 것을 권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다]는 현실을 딛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끈기, 열정에 관해 다루고 있지 않다. ③ [다]의 화자의 태도는 잃어버린 영화를 다시 찾자고 격려하는 태도가 아니다.

87) 답 ①

㉠ <보기>의 ‘구리 거울’은 ‘왕조의 유물’, 즉 망한 나라의 유물이다. ㉡ 역시 고려의 왕궁 터로 망해 버린 나라의 유물로 볼 수 있다. ㉢ ‘객(客)’은 역사의 주변 인물이 되어 버린 화자 자신을 뜻하며(㉠), ‘필마(匹馬)’ 역시 과거의 영화를 잃고 외로운 신세가 되어 버린 화자의 모습이다(㉢), ‘산천(山川)’은 변하는 인간사와 대비되는, 변하지 않는 자연의 모습이고(㉡) ‘꿈’은 ‘인생무상과 같은 허망감’을 표현하는 시어이다(㉡).

88) 답 ④

㉠ ㉠, ㉢, ㉡, ㉣는 모두 망한 고려의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는 시어인 데 비해, ㉤는 망한 고려를 되살릴 충신을 뜻하므로 함축적 의미가 다르다.